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변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아 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변인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Variable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01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아 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변인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아 영

이아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희 (인)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v
ABSTRACT	v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 이론적 배경	6
1. 정서행동장애의 개념	6
1)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6
2) 정서행동장애의 분류	9
3) 정서행동장애의 원인	11
4) 정서행동장애의 특성	15
2.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17
1)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과 특성	17
2) G시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	22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및 관련변인	35
3. 관련 선행연구	17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17
2)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20

Ⅲ. 연구방법	39
1. 연구설계	39
2. 연구대상	39
3. 연구도구	43
1) 기초사항 질문지	43
2) 정서행동특성 질문지	43
4. 연구절차	45
5. 자료분석	46
Ⅳ. 연구결과	48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48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49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50
1) 성별에 따른 차이	55
2)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56
3)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56
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57
5)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	58
6)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	59
7)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	60
8)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	61
9)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62

V. 논의	63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63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66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68
1) 성별에 따른 차이	69
2)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69
3)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69
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70
5)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	70
6)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	71
7)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	72
8)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	73
9)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74
VI. 결론 및 제언	76
1. 결론	76
2. 제언	78
참고문헌	79
부록	88

표 목 차

<표 I-1> 미국 행동장애아동협회(CCBD, 2000)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7
<표 I-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8
<표 I-3> 한국특수교육학회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8
<표 I-4>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 문제행동척도의 구성	10
<표 I-5> 한국특수교육학회의 정서행동장애 분류	11
<표 II-1> 특성화고등학교의 내용	19
<표 II-2> 공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	23
<표 II-3> 상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	24
<표 II-4>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가사) 학교 및 학과 현황	24
<표 II-5> G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현황(단위: 명, %)	25
<표 II-6> 2013~2015 학년도 일반전형 결과(G시 G특성화고등학교)	25
<표 III-1> G시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사항	40
<표 III-2>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N = 340)	41
<표 III-3> 아동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별 문제행동척도의 구성	44
<표 III-4> 질문지 회수상황	46
<표 IV-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분석결과	48
<표 IV-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임상유형 분석결과	50
<표 IV-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분석결과	51
<표 V-1> 일반 청소년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비교	65
<표 V-2> 일반 청소년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비교	67

ABSTRACT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Variable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y Lee Ah-Young

Adviser : Seunghee L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analyz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related variable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questions focused on the following.

First,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typ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ird, the difference in related variables (Gender, Religion, Economic level of household, School establishment type, Series(choic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 of major satisfaction, Motive factor of Freshmen, Smart phone usage, Smoking) according to typ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was conducted on 345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G-city. Of the 345 questionnaires that were distributed and returned(100%), 5 with nonresponses or insincere answers were excluded; and totally 340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F-test by SPSS 18.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highest level was withdrawal/depression, followed by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problems of thought, rule violations, social immaturity, anxiety/depression, concentration, and aggressive behaviors.

In addition, externalizing problems were higher than internalizing problems.

Second, for the typ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ithdrawal/depression was the highest in (sub)clinical problems, followed by problems of thought, physical symptoms, rule violations, concentration, social immaturity, anxiety/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The percentage of internalizing problems was the highest in (sub)clinical problem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related variables (Gender, Religion, Economic level of household, School establishment type, Seri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Levels of major satisfaction, Motive factor of Freshmen, Smart phone usage, and Smoking) according to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① difference by Gender

Anxiety/depression, withdrawal/depression,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social immaturity, concentration,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problem of the total action showed a higher average of female students, as compared to male students.

② difference due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Religion

Notably, concentr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higher average in students who had religion, as compared to the students who had no religion.

③ difference due to the Economic level of the household

Anxiety/depression, withdrawal/depression,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social immaturity, problems of thought, concentration, aggressive behaviors,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problem of the total action, were more prevalent among those in the (c) economic level in any other economic

level.

④ difference due to the School establishment type

Significant difference occurred in aggressive behaviors alone. The average of private school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f the public school.

⑤ the difference due to the Series(choices) of specialized high school

Anxiety/depression, withdrawal/depression,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social immaturity, concentration,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problem of the total action showed the highest average in (b)Commercial High School followed by (a)Agriculture/health and (c)Technical High School, in order.

⑥ difference due to Levels of major satisfaction

Withdrawal/depression, concentration, aggressive behaviors,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s, and problem of the total action showed the highest average of (d)dissatisfaction followed by (c)generally satisfied, (b)fully satisfied, and (a)very highly satisfied, in order.

⑦ difference by Motive factor of Freshmen

Due to motive factor of freshmen, concentration alon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e)The recommendation of the parent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a)having no rights to enter humanities course, (c)to get the job after graduation, and (b)having the advantage of entering college, in order.

⑧ difference according to the usage of Smartphone

Concentration, rule violations, aggressive behaviors, externalizing problems, and problem of the total action showed the highest average of (d) ≥ 6 hours, followed by (c) > 4 hours < 6 hours, (b) > 2 hours < 4 hours, and (a) < 2 hours, in order.

⑨ difference due to Smoking

Withdrawal/depression,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rule violations, and aggressive behavior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ithdrawal/depression, the average of nonsmo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mokers; whereas, in physical symptoms(somatic complaints), rule violations, aggressive behaviors,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average of smok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smok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실시하여왔다. 정서행동문제에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한적인 자료이지만 이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서행동문제와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2014년 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2014)에 의하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여학생이 31.6% 남학생은 22.2%로, 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남 25.3%, 여 32.9%), 특성화계 고등학교(남 23.2%, 여 34.1%) 순으로 높았다. 특히 특성화계 고등학교 여학생은 34.1%로 가장 높은 우울감 경험률을 보였다.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여학생이 43.7% 남학생은 30.8%로, 학교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남 34.0%, 여 47.5%), 특성화계 고등학교(남 32.3%, 여 48.2%)순으로 높았다. 역시 특성화계 고등학교 여학생이 48.2%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여학생도 15.1%로, 남학생은 11.0%로, 자살생각률 또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학교 계열별로는 남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11.9%), 특성화계 고등학교(9.7%) 순으로 높았고, 여학생은 특성화계 고등학교(14.6%), 일반계 고등학교(14.1%) 순으로 높았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4).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는 다소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

시기에 요구되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여러 과업들을 적절하게 해결한 청소년들은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박성하, 2005). 이러한 문제행동은 우울 및 불안, 위축, 신체화 등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외면화문제로 표출되며(오경자, 문혜신, 김영아, 박수경, 김진관,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다른 또래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학업 문제 등으로 발전될 수 있고 반사회적 성향의 성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김경희, 황혜정, 1998).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키우고,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강성원, 옥준필, 2000),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고질적인 초고학력시대와 사회적 분위기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전한 기피현상과 소질과 적성보다는 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진학으로 직업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산업체의 불신을 초래하여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김혜민,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은 입학 동기,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데(손득운, 2008),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다수며 열악한 가정환경 즉 낮은 경제수준의 환경과 결손가정이 주요한 입학동기로 나타난다. 대학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목적의식의 결여, 상대적 열등감, 부정적 자기인식, 자신감 회복 등으로 지도에 큰 어려움과 교단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화형, 2004).

학생들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추진으로 치열한 교육 현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높아진 기대수준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여 양질의 취업처에 성공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역시 좋은 성적이 관건이 되

어 서경희(2016)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취업과 진학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적인 편견, 가정형편, 열악한 환경조건 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한다. 손신영(2012)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김정관(2004)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는 없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음주, 흡연에서 일탈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정서행동문제는 가정, 이웃, 학교, 사회적 위험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노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김진호, 2013). 불리한 양육환경으로서 가정에서 자라나서 학생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또래와 교제할 때 그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일탈된 행동은 지역사회에 반사회적 생활양식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가정 외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인 학교는 대부분의 정서행동장애가 학교에 들어가서야 판별되므로 학교가 실제로 정서행동문제의 발생과 관련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정서행동문제에 기여하는 학교에 관련된 요인은 학업의 실패,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한 규칙들과 기대와 훈육 등을 말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을 개인변인으로는 성별과 종교유무를, 가정환경변인은 가정경제수준을, 학교변인으로는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입학동기를, 사회·문화적 변인으로는 스마트폰사용량과 흡연유무로 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스미디어와 SNS를 통하여 청소년의 급증하는 문제행동과 일탈을 뛰어 넘은 잔악한 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각하게 정신건강문제를 우려하면서도 적극적 대안 모색과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정도와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책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어떠한가?
-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어떠한가?
-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관련변인(성별, 종교유무, 가정 경제수준,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스마트폰사용량, 흡연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① 특성화고등학교

특정전문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해당 산업 분야의 직업 준비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고, 전자통신고, 디자인고 등과 같이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로서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 교육 성격의 학교를 말한다.

②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란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K-YSR)」(오경자, 김영아, 2011)의 11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8개 하위 증후군척

도, 3개의 상위 증후군(척도)로 측정되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을 말한다.

③ 정서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정도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의 T점수를 말한다.

④ 정서행동문제 유형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유형이란 다음과 같은 구분을 의미한다.

- 정상: 8개 하위 증후군(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T점수가 65미만인 경우를, 3개의 상위 증후군(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은 T점수가 60미만인 것을 말한다.

- (준)임상: 8개 하위 증후군(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은 T점수가 65이상인 경우를, 3개의 상위 증후군(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은 T점수가 60이상인 것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서행동장애의 개념

1)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정서장애란 심리학적으로 선호하는 용어이고, 사회학적으로는 사회부적응, 법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지만, 이 용어 또한 정서 및 심리적인 면과 행동적 또는 외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는 한계가 있다(정대영, 2013).

정서행동장애는 인간의 내적 상태인 정서와 외적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동일 연령 집단의 정상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히 사회적 관계, 감정조절, 활동수준, 주의집중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박원희 외, 2009). 정서행동장애는 아동 그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그 둘 다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일탈된 행동(강종구 외, 2010)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정서행동장애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정도나 강도가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나타낸다(권요한 외, 2010).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의 정의가 가지는 모호함과 부적격성을 이유로 문제점을 수정하여, 특수교육협회(CEC)의 미국행동장애아동협회(CCBD)에서는 <표 I-1>과 같이 정서행동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완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이 정의는 ‘학업, 사회성, 직업, 성격적인 면을 포함한 교육적 성취’로 지정하여 학업성취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품행이나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I -1> 미국행동장애아동협회(CCBD, 2000)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i) 정서행동장애아동(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이라는 용어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행동이나 정서적인 반응이 일반 또래의 나이나 문화, 민족 내의 평균치와 매우 달라서 결과적으로 학업, 사회성, 직업, 성격적인 면을 포함한 교육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장애로서 특징지어지는 장애로:

(A)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환경 내의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반응을 보이며,

(B) 두 개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어도 그 중 하나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환경이며,

(C) 교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내에서의 개별화된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ii) 정서 및 행동장애는 기타 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iii) (i)와 (ii)에서 명시한 대로 교육적인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신 분열증, 정동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기타의 품행이나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이 이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정서행동장애는 환경 내의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꾸준히 나타나지만 그 중 한가지는 학교와 관련된다. 또한 일반교육에서 직접중재에 반응하지 않고 일반교육중재로는 충분하지 않는 아동의 조건을 말한다(정대영, 2013).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기준[제10조 관련]에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표 I-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항목의 특성이 ‘학습에 어려움’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일반 학급 내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정대영, 2013).

이에 위와 같은 법적 정의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특수교육학회(2008)는 규준 및 기대 수준의 심각한 이탈, 학업과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영역의 구체적 곤란함을 제시하는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표 I-3> 한국특수교육학회의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정서 및 행동이 또래 집단의 규준 혹은 기대 수준을 심하게 벗어나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사회적 관계, 감정조절, 활동수준, 주의집중력, 등의 곤란으로 자신 및 타인의 기능을 방해하며 학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의 진단이라는 임상적 목적을 가지고 정신장애들은

개인에게 나타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증상 또는 한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영역에서의 손상을 가져오거나 죽음, 통증, 장애 또는 중요한 자유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행동적 또는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상을 정서행동장애라고 명시하는 반면,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정서행동장애의 증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근래 문제행동의 예방과 조기증재가 강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양자 모두를 뚜렷히 방해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사용한다(이승희, 2012).

2) 정서행동장애의 분류

(1) 임상적 분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DSM(Diagnostic and Sts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이다. DSM은 임상관찰에 의한 질적 분류체계로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PA)에서 고안하고 임상가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접근법으로 정상(normal)과 병리(pathological)는 정도가 아니라 종류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장애들이 질적으로 다른 유형들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DSM은 1994년에 DSM-IV, 2000년에 DSM-IV-TR로, 2013년에는 DSM-V로 정신과의 임상적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경험적 분류

근래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문제를 분류하는 경험적 접근이 적용되고 있다. 관련있는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크게 외현화(externalizing)문제와 내재화(internalizing)문제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Kauffman

& Landrum, 2009).

문제행동 문항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좁은 범위의 8개의 증후군 척도로 발전시켰고, 다음의 <표 I -4>와 같다. 특정한 증후군으로 묶이지 않은 문항들은 기타문제 척도로 분류하고, 이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척도는 내면화 문제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은 외현화문제로 분류되어 상위척도인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를 구성하고 있다.

<표 I -4>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 문제행동척도의 구성

척도	하위척도	상위척도	
증후군척도	불안/우울	내재화문제	총문제행동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외현화문제	
	공격행동		
기타 문제	·		

한국특수교육학회(2008)도 Achenbach와 Edelbrock이 제안한대로 내재화장애, 외현화장애, 기타장애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애에 대한 하위장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I -5> 한국특수교육학회의 정서행동장애 분류

정서행동장애 분류		
내면화장애	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신경적 거식증, 신경성포식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선택적 함묵증
	기분장애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외현화장애		ADHD,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기타장애		정신분열증, 뚜렛장애 등

3) 정서행동장애의 원인

정서행동장애는 문제의 발생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기여한다. 최근에 와서는 큰 한 가지 기여요인이론보다는 다양한 기여요인의 영향과 복잡한 상호작용이 정서행동장애의 원인과 발달에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인정받고 있다.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가족요인과 학교요인들이 언급된다. 가족과 학교요인으로서 비일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 아동의 개별성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아동의 성취나 품행에 대한 교사나 부모의 너무 높거나 낮은 기대, 방종적이거나 너무 완고하거나 비일관적인 학교의 훈육 방법 등이 아동의 정서나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1) 생물학적 원인

① 뇌손상 및 뇌장애

출산 합병증이나 사고에 의한 뇌손상, 영양부족, 중독물질에의 노출은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를 가져온다. 출산 전이나 후에 기형유발물질이 혹은 산모에게 투여되는 약물과 난산 등이 태아의 손상과 질병, 혹은 행동적 결과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거의 절반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며, 일반 교실로 돌아가는 경우 그들이 잘 적응하기 위하여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김진호, 2013).

또한 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야기하는 신경전달물질과 신경호르몬 체계는 정서행동장애의 원인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생리화학적인 요소로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등의 불균형에서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② 유전

유전적인 요소가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서행동장애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정도 이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ullinan, 2007).

③ 기질

생물학적 요인과 정서행동장애의 원인과 발달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유전이나 기타 체질상의 요인(출산 전 상태)이 특정 행동 양상을 발달시키는 상황을 조성해 준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기질(temperament)이 바로 그것인데, 출생 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행동양상으로,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있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며, 모든 아동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주장한다(Kagan, 1984). ‘쉬운 기질’ (easy temperament)을 지닌 아이에게는 이상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특정 사건이 ‘난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을 보이는 아동에게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Keogh(2003)는 다루기 어려운 ‘난 기질’의 아동은 그가 행동하는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 또는 문화적 기대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의 대략 10%를 차지하는 ‘난 기질’의 아동은 생활패턴 등 생물학적 기능이 불규칙적이고 적대적이며 조그만 좌절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짜증을 잘 내고 신경질적이다(박지은, 2015). 다루기 어려운 '난 기질'을 가진 아이와 아동은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아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관계를 초래하고 이는 미래에 아이가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행동을 보일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2) 심리사회적 원인

환경적 요소가 독자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빈곤, 학대, 방치, 부모의 스트레스, 일관적이지 못한 기대, 사회적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빈곤의 경우 아동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행동장애의 38%가 극빈층에서 32%는 저소득층에서 출현했다는 보고가 제시되고 있다(Fujiura & Yamaki, 2000).

또한,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의 강압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양육방법은 아동의 정서를 수축시키고 자존감을 낮추어 문제행동을 재촉할 수 있다. 남학생은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을 지각하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여학생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김연화(2014)는 보고한다.

내재화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다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재화문제로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와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도 유의하였다. 외현화문제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어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외현

화문제로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 오경자, 2000).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모전체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옥, 2011).

부모갈등이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대를 통해서도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준다(남미영, 2011). 가정내 폭력과 아동학대는 정서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잔혹한 환경요인이다.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빈약한 자아상을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며, 수동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면서 새로운 관계나 활동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 약물이나 알콜중독 등을 경험하게 된다(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AFL-CIO, 1996). 특히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동은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4)에서도 그 결과가 명확히 보인다, 학대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이는 학대아동의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3.9%, 가출과 학습문제가 각각 3.6%, 3.5%로 나타났다. 정서·정신건강 중에는 불안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 산만 4.6%, 낮은 자아존중감이 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문제와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화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정서행동장애를 보일 가능성은 커진다.

교사는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학급운영을 잘 못하고 학생의 개인차에 민감하지 못한 교사는 공격행동이나 좌절, 위축 등의 반응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면에 학급운영을 잘하고 개별학생에게 맞는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교사는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교사의 지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인 비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반의숙,

2009). 문제의 예방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생의 학업성공을 촉진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학업실패와 반사회적 행동은 미래의 기회를 제한하고 미래의 부적응을 야기한다(김진호, 2013).

또래집단의 문화는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매스미디어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SNS)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와 공유로 인해 사회적 비행을 모방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강대옥, 강병일, 김기주, 김남진, 김창평, 2012).

4) 정서행동장애의 특성

(1) 인지적 특성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정인지체부터 영재아에까지 광범위한 지적능력을 보이지만 대부분 정서행동장애아동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지능을 보이고, 경도 지적장애의 범주에 속하며 상위에 속하는 지능을 보이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한다(Kaufman & Landrum, 2009).

(2) 학업적 특성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대부분 학습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도 학업부진은 잘 개선되지 않는다. 학업수준은 대부분 자기 학년보다 1년 이상 지체되어 있으며 교사가 질문 할 때나 과제를 수행할 때 심사숙고함 없이 급하고 부정확하게 반응을 할 뿐 아니라 조직적인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지시따르기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고, 학업 기술 및 습득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때때로 교사에게 불손함을 보이기도 하고, 장기간 결석하거나 비행이나 범법 행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소현, 박은

혜, 2013).

(3) 언어적 특성

정서행동장애 학생의 50% 이상이 언어장애를 수반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언어문제는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학생의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보호자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한다(정대영, 2013).

(4) 사회적 특성

정서행동장애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에서 결핍을 보인다. 대인관계에 효과적이고 우호적인 대처기술인 사회적 특성의 결핍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진 정서행동장애 학생에게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많은 정서행동장애 학생들은 친구 사귀기와 및 사회성 및 기타 일상적인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교생활 전반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3).

(5) 행동적 특성

정서행동장애문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두 유형으로 나눈다. 내재화 행동문제는 과다통제된 행동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는 과소통제된 행동으로, 외현화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수업 중 사람과 사물을 향하여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과도한 언쟁과 성질부리기와 거짓말 또는 도벽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과도한 행동과 교사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반면 내재화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슬픈 감정과 우울과 자기비하에 자주 빠

지며, 특정 상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비전형적 감정과 반응을 보인다. 공포나 불안의 결과로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등의 신체적인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며 타인과 공감수준도 낮으며, 질적 관계도 낮아서 위축되고 때로 과도하게 놀림을 당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또래에게 기피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의미있는 관계형성에 실패하고 중도 탈락률이 높고 성인으로 성장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정대영, 2013).

2.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1)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과 특성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직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를 키우고,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용(2007)도 특성화고등학교를 특성분야에 소질·적성·관심이 있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특성있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설명한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특성화계 고등학교 체제로 통합·정비하였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문계고(구 실업계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고,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 특성화고, 종합고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고의 형태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취업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원과 협약의 형태를 볼 때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청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협약학교, 지자체협약학교, 일반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등학교는 2015년까지 150개교가 지정될 예정이다(김용학, 2012).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 분야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특성화계열로 구분하여 다양한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특정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학교시설이나 규모 등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정민, 2006). 강성원과 옥준필(2000)은 다음 <표Ⅱ-1>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명한다.

<표Ⅱ-1> 특성화고등학교의 내용

구분	내용
교육목적	특정 분야의 장래 인재 양성
학생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보통학생
교육내용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의 요구가 있는 특정분야 집중적인 전문교육
교사	중등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교사, 산학 겸임교사
학생의 진로	관련 분야의 취업, 해당 분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진학
학교유형	단일형, 복합형 특성화고교
학교 규모	소규모 학교
지정권자	시도 교육감
학생 선발 시기 및 모집단위	전기, 전국단위
학생선발방법	해당 분야의 실기고사, 적성검사, 면접 등 필기고사 불가, 해당분야의 입상경력 및 자격증에 가중치 부여
전·편입학	학교간 전학가능

<표Ⅱ-1> 계속됨

구분	내용
운영지원 행정부서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및 산업교육 정책과
학교종류	디자인고, 자동차고, 원예고, 조리과학고, 애니메이션고 등
교육특징	현장중심의 교육, 실천 활동 중심의 교육, 자율적인 학교 운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2011년 1월 ‘학업 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취업 인턴제 도입, 현장중심 직업교육강화, 취업과 학업 병행 개선, 기업의 직업교육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도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업성취와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의 직무능력을 모두 중시하고, 직업준비에 역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계획·운영하며, 산학협동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학교와 산업사회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여러 교육과정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학습은 현장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단위에 포함하며, 고등학교 3년간 최소 2단위, 최대 68단위까지 편성·운영이 가능하고, 이수 단위 인정 기준은 매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고, 한 학기동안 17시간 이수하면 1단위로 하고, 사전 안전교육과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 실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전문 응용 실습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평가는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 현장실습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산업체 현장적응력 제고의 방편으로 학교에서 2년, 산업체에서 1년을 이수하는 ‘2·1체제’를 운영

했으나 체계적인 훈련과정 없이 조기취업의 형태로 변질되고, 중소기업은 현장실습이 아닌 인력난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정태화, 2003).

다른 유형의 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사이의 가장 큰 변별력은 이러한 교육과정은 영과 신입생선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특기적성이나 소질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고 중학교 내신성적이 주요 선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영혜와 박소영은(2008)는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특기적성보다 지원자의 내신성적이 핵심전형요소이며, 이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신입생 선발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적성 및 소질 보유여부를 입학전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위주여서 입학희망자는 적성에 맞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입학 희망자는 1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어 진로선택의 기회도 제한된다. 안주태 부산교육청 인재개발과장은 "입학전형 개선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자에게 진로선택의 기회와 산업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행스럽게도 2016학년도부터는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취업의지 등을 고려해 취업희망자가 특별전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특별전형 형태는 취업희망자, 가업승계자, 체육특기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학교마다 정원의 17~50%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내신보다는 학교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취업서약서, 취업의지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015.9.23.).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입시부터 특성화고 모집인원의 30%를 중학교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소질과 적성, 특기, 잠재능력으로 선발하는 제도인 ‘미래인재 특별전형 선발 방식’ 적용을 예정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의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전형 방법 개선 모색 토론회」에서 중

학교 졸업예정자의 석차연명부를 근거로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현재 고등학교 전형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의 전형방법을 지적하였다. 주제발표를 한 김학윤 오금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식은 성적 중심의 선발 방법으로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는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고-후기고의 구분을 없애고 동등한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평등교육 실현의 취지를 살린 특성화고 입학 희망자 대상의 추천 방식 도입 등과 같은 전형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법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피력했다(구민신문, 권경호기자, 2015.8.26.).

2014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은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듯하다. 학교와 기업의 최적화된 실습환경에서 숙련된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기술특기병으로 입대하여 배운 기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력경로를 개발하여 자격증 취득, 현장체험 등 여러 교육활동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변화시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반으로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과 역량을 선별해서 체계화하고 정리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일-학습-자격을 연계한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무분야 중심으로 기초 이론을 배우고 현장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모델인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2015년 현재 전국 9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등학교의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글로벌 현장학습’,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유니테크 사업’, ‘IP-Meister프로그램’ 등이 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독일, 호주, 스위스 등 해외기업에서 3~6개월간의 실습을 통해 글로벌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선진기술 체험 및 학습의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유니테크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현장

이 요구하는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로 삼고, 2016년에는 16개의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IP-Meister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권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여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기술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특허청, 중기청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혁신교육 취지에 맞는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는 직업 교육 기관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여전히 성적부진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성적이나 학습동기,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기대와 지원이 낮을수록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자아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기초수학능력과 직업적 기초능력도 미흡하다고 보고되었다(류성희, 2007; 강영혜, 박소영 2008; 옥준필, 김선태, 김기홍, 2012).

또한 직업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생일지라도 학부모의 등쌀에 떠밀려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원하는 직업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적응도 잘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는 본인은 직업교육을 원하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학부모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진학한 학생들도 상당수다.

직업교육에 대한 여건이 좋아졌지만 많은 학부모가 여전히 직업교육을 ‘입시에서 실패하면 가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에 선발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내신성적 입시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져, 후기에 선발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학생들은 뒤늦게 공부에서 흥미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에도 실패해 의욕을 잃는 경우도 상당수이다(동아일보, 임현석 기자, 2015.10.15.).

2)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

(1) 학교 현황

G시 취업지원센터는 2014년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진학설명회에서 ‘2014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진학설명회교재’를 발간하고, G시 12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계열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표Ⅱ-2> 공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

학교	설립 구분	학과	비고
G공업 고등학교	공립	토목과 / 광정보기술과 / 건축과 / 정밀기계과 / 신소재응용과 / 기계시스템과 / 전기과 / 전자과 / 컴퓨터응용설계과 / 기계설비과 / 메카트로닉스과	남녀 공학
G전자공업 고등학교	공립	자동화기계과 / 전산응용기계과 / 전기과 / 전자기계과 / 전자통신과 / 자동차과 / 디자인과 / 환경시스템과	남녀 공학
K공업 고등학교	사립	디지털기계과 / 통신전자과 / 생명정보화공과 / 첨단장비정비과 / 기계과 / 생명화공과 / 전기전자과	남녀 공학
J공업 고등학교	공립	산업설비검사과 / 생명정보화공과 / 건설정보과 / 전기디지털정보과 / 기계과 / 건축디자인과	남녀 공학
S고등학교 (전문계열)	사립	자동화기계과 / 신재생에너지과 / 건축인테리어과 / 자동차과	남녀 공학
D전자정보 고등학교	사립	인터넷정보과 / 토탈뷰티과 / 광전자통신과 / 디지털전자과	남녀 공학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는 학교유형을 특성화고, 마이스터, 일반고(종합고)로, 계열은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일반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G시 취업지원센터의 ‘2014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진학설명회교재’의 계열분류를 따라 기초사항조사에 사용하였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를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형태인 마이스터고는 제외하고, G시의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12개교로 조사되었다.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는 공업계열은 6개교로 위의 <표Ⅱ-2> 공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에, 상업계열은 4개교로 <표Ⅱ-3> 상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으로, 농업생명/보건계열(가사·실업)은 2개교로 <표Ⅱ-4>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가사·

실업) 학교 및 학과 현황으로 아래와 같다.

<표 II-3> 상업계열 학교 및 학과 현황

학교	설립 구분	학과	비고
G경영고등학교	공립	디지털콘텐츠과 / 정보통신과 / 세무행정과 / 금융서비스과 / 회계서비스과 / 비서사무서비스과	남녀 공학
G여자상업고등학교	사립	콜마케팅과 / 글로벌비즈니스과 / 디자인과	여
S여자상업고등학교	사립	보건행정과 / 컴퓨터디자인과 / 금융비즈니스과 / 세무금융행정과 / 콜마케팅과 / 세무보건행정과	여
J여자상업고등학교	사립	간호과 / 디지털디자인과 / 글로벌금융과 / 글로벌디자인과 / 글로벌경영과 / 디지털경영과	여

<표 II-4>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가사·실업) 학교 및 학과 현황

학교	설립 구분	학과	비고
G자연과학고등학교	공립	애완동물과 / 조리과학과 / 식품과학과 / 식물과학과	남녀 공학
SJ여자고등학교 (전문계열)	사립	정보처리과 / 간호과 / 시각디자인과 / 경영정보과 / 디자인과	여

(2) 학생 현황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수는 2015년 7월 기준 11,697명이며(HIFIVE, 2016), G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총 학급수는 364개로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G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현황(단위: 명, %)

현황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비율	취업률 (2014년)	진학률
G시	51.4	48.6	34.4	16.4	1.4	37.7	40.04
전국	52.1	47.9	30.2	14.9	1.4	45.9	78.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학력 인플레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우수 강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역 사회 및 학생·학부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및 선호도 역시 상승하는 조짐이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각 계의 노력과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을 근거로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현재 고교 전형방식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다음 <표 II-6>는 3년간의 G시 G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 결과이다.

<표 II-6> 2013~2015 학년도 일반전형 결과(G시 G특성화고등학교)

학년도	학급당 정원	합격 인원	일반전형 응시	평균	최저 (일반전형)	비고
2013	34	476	614	63.3	82.1	--
2014	33	429	553	56.2	73.6	특별전형 (정원39) 18명 지원 17명 합격
2015	31	420	531	58.6	100	특별전형 (정원39) 22명 지원 9명 합격

2016학년도 G시 G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홍보 및 진로 안내문에서 발췌

2016학년도 신입생 전형방법은 총정원제 방식에서 학과별 정원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탈락자 중 2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 인원 합격자를 선발한다. 소질·적성 특별 전형 최저합격기준도 평가 항목 총점 67점 미만이면 불합격처리를 하고 있어서, 성적이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하는 것은 대학 입시나 취업시의 분위기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다. 한 예로 <표 II-6>와 같이 G시 G특성화고등학교의 2013~2015학년도 일반전형 결과를 보면 소질·적성 특별 전형 합격자의 수는 미미한 반면, 합격자의 대다수는 성적이 중하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2,344교로 특성화고등학교(직업) 473개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 25개교(교육통계서비스, 2015)로 고등학생의 대략 25%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다.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변인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위기,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 산학협력 및 실습기회를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점으로 들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지도 방식은 대체로 학생 친화적이며 덜 통제적이다. 반강제적 자율학습이나 일률적인 보충수업이 없으며 두발 및 복장 단속 등에서 보다 너그러운 편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크다고 보고하기도 한다(강영혜, 박소영, 2008). 그러나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고는 부정적이다.

박양선(2015)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많은 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나 동기가 없을뿐더러 과거부터 수년간 ‘학업열등생’으로 낙인찍혀 자신감과 동기가 크게 결여되어 있고 더 큰 문제는 충동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하여 교과 학습활동 뿐 만 아니라 학교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실정을 말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의 대부분의 교사

들은 학생들의 지각, 결석, 흡연, 인터넷 중독, 핸드폰 문자 중독, 학교 폭력 등 크고 작은 학교부적응 행동들을 생활지도 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김미정(2013)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기초학력저하 그리고 편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상당수이어서, 주말을 이용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무분별한 금전적 소비성향으로 음주와 유흥문화 등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교자퇴와 부적응으로 학업중단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및 관련변인

① 성별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심리내적인 억제현상으로 나타나는 외로움, 사회적 위축, 우울, 두려움, 등의 내재화문제와 감정이나 행동의 억제가 결여된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거짓말, 도벽, 타인을 괴롭힘 등의 외현화문제로 분류한다(전영희, 2010). 성별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남학생이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주로 남학생은 외현화문제를 여학생은 내재화문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정서행동문제로 확인된 남학생들은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여학생은 불안이나 위축 등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김진호, 2013).

그러나 여자 청소년이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외현화문제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서찬란, 이형실(2006)의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크게 증가하고 문제행동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에 따르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말한다. 백승영(2014)도 그의 연구에서 내재화문제에 남녀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외현화 행동문제 또한 남녀 구분없이 행하여져서 성별차이는 점점 나타나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높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현화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의숙(2009)도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남자도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여자도 공격성이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수주, 2002). 김유경(200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공격성을 나타냈고 남학생에게 내재화 행동문제와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② 종교유무

종교와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종교성향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Benda(1997)는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낮은 종교성향을 지닌 청소년이 범죄에 많이 관련되었다고 보고한다. Kim(2003)도 종교성향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를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범죄율과 비행,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Benda와 입장을 같이한다.

김은희(2006)의 연구에도 사회적인 통념과 다르지 않게 종교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외재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내·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경제수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 청소년은 비행, 부적응과 같은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윤혜미, 박병금, 2005) 빈곤 가정일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수준도 일반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과 같은 부모의 정신건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가정의 낮

은 경제수준인 빈곤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비행행동 등의 적응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된다(Embry, 2004).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은 낮은 학업성취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공격성 행동장애, 높은 충동성과 우울성, 10대 임신, 실업, 성인기 범죄, 빈곤의 전이와 같은 장기적 악영향을 가져오는 잠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홍순혜, 이숙영, 2009).

반면에,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밝힌 연구도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소득에 따라 세분화한 객관적 자료에 의한 조사나 분류가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에 대한 응답 형태여서 청소년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중류층가정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반의숙, 2009).

빈곤할수록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현명선과 김경희(2004)의 연구에서는 중·상류층 이상인 집단에서 문제행동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영숙(2002)도 일반 가정 자녀의 비행과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④ 설립유형

설립유형과 관련한 정서행동문제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최영관(1995)의 계열별, 설립별 중심으로 고등학교조직풍토와 교사의 직무만족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공립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보다 개방적인 풍토이고,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공립고등학교 교장보다 더 권위적, 지시적인 반면 사립고등학교 교사들간의 친밀성이 높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고등학교조직풍토에서 상호작용하는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환경과 교사요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⑤ 학교특성화계열

교육목적에 따른 분류를 따라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등 일반적 산업분야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 보통교육 및 직업준비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준비 및 상급학교 진학 준비교육을 한다. 공업고, 농업고, 상업고, 수산해양고 등이 있으며, 기업과 산업체에 취업 또는 전문대, 대학등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보통교육을 실시 진학을 전제로 한다(류성희, 2007).

김혜선(2013)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여학생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며, 계열차이를 그 원인으로 분석한다. 즉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공업계열로 여학생은 상업계열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⑥ 전공만족도

저성장시대 초고학력 사회로 향하며 가족 해체, 경제적 침체, 도덕성 타락 등의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취업과 함께 진학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안되어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이로 인한 열등감을 겪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교사나 또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형성이나, 학업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김미선, 2006).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환경에서의 부적응은 다시 기초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김장희, 정성수,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도 성적도 원만하게 되고 졸업 후에 취업과 진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공만족도는 아주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될 것이다. 황찬금(2014)은 전공만족이 전공학과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유쾌한 감정적 태도와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또 자신이 선정한 기준과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을 비교할 때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의 자신의 성공적 비전이나 미래의 인생향로에 대한 전망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전공만족도와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교변인을 제외하고 논의하기는 힘들며,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가 전공만족도에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황혜원은(2007)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친구의 비행수준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서인석, 황홍익(2009)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만족도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야하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학교가 지나친 경쟁구도와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을 고집한다면 좌절과 부적응, 학교중도 포기와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미애(2005)는 청소년의 학교환경 요인이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이 학교환경 요인에 부정적일수록 문제경험이 많음을 보고하는데 학교환경 특성 중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한 주요 요인은 교사의 관심도와 학업스트레스로 보고하였으며, 나타난 문제행동은 비행, 폭력행동, 약물남용, 성문제행동 순으로 보고한다.

서영자(2012)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변인이 학교환경 교

사수업 교우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여부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사와 학업에 열의가 있는 적성과 흥미를 지닌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는 학교환경의 중요 요인으로서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김수주, 2002), 조양진에 의하면(2013)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수업과 교우관계에 잘 적응하고 학교규칙도 잘 준수한다. 교사의 응원은 청소년의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른 인격 형성과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잘 이행하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의 롤모델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⑦ 입학동기

동기는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행동 발생 원인으로(안지현, 2006) 인간 행동을 증진 혹은 감소하는 내면적 현상으로 학습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형성되는데, 학습활동에 대하여 성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뒤따른다. 입학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오늘날 학교교육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되지 않아서’가 특성화고등학교(상업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동기로 선행연구에 많이 나타난다(박진아, 1998).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정의 비율이 높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적이 부족해서 부득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은경, 2000). 학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의지보다는 성적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상급 학교를 택하는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학습 효과도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문호순, 199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부적응과 기타 어려움으로 인한 중도 탈락, 진학희망자 양산, 취업장벽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성적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택한 학생들은 자칫 열등감으로 목표의식이 없이 지내고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의 욕저하로 학교생활전반에 걸쳐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오화진(2008)은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주의집중 관계분석에서 흥미와 적성, 대학진학유리가 주의집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가 있거나 대학진학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학습에 있어 좀 더 주의집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흥미와 적성, 대학진학이라는 동기가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상숙(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입학동기를 고려할 때, 학교선택이나 자신의 전공, 직업에 대한 가치관, 학교생활적응, 등 전반에 흥미집단과 가정형편집단은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실력부족집단이나 타인권유 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학교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수 없이 성적부진으로 또한 주변의 권유로 입학하게 된 흥미집단과 가정형편집단의 경우와 다르게 특성화고등학교(상업계열)에 다니는 것을 불만족 수준으로 반응하였다. 이는 이들이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짐작한다.

김정민(2006)의 연구에서는 미용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동기는 대부분이 성적 때문이었으며, 입학결정 시기는 중 3학년에 자신 혼자의 생각으로 입학결정을 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운영기관이므로 소질과 적성보다 ‘인문계 진학 성적이 되지 않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된 학생들에게 열등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래에 관심을 갖도록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지도 모색이 필요하겠다.

⑧ 스마트폰사용량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29.2%였으며, 그 중에 고위험군은 3.3%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로 중독 위험군은 하루 평균 318.5분(5시간 이상)을 모바일 메신저, 뉴스검색, 온라인게임에 사용하고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학업 및 업무방해’와 ‘부모님과 갈등’ 문제를 경험하는 중독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도 강북과 성북지역 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중독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배 높고 우울 및 불안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독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윤영숙(2013)은 스마트폰의 사용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불안장애, 분노 폭발적 성향 등 정신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한다. 금창민(2013)은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의 과다사용과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내재화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력과 청력감퇴, 수면부족, 체력부진 등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장로, 2013).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공격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할수록 공격성 또한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도구로서 자리하여, 학교 폭력도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은 사이버서플, 음란영상 보내기, 문자협박, 카톡으로 뒷담하기, 카톡 따돌림, 몰래카메라 찍기 등 사이버폭력이 늘고 있는가하면 이에 따른 학력저하와,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올바른 지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절박한 시점이다(배원숙 기자, 주간교육신문, 2013. 8.23.).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한다는 보고도(전민, 2012)이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심해질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 만족도 및 의사소통이 감소하는 경향이 밝혀져(김현정, 2016)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주는 변인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밝혀지고 있다.

⑨ 흡연유무

전반적인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과 사회적 금연분위기와는 상이하게 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른 남자고등학생의 흡연률은¹⁾ 11.9%로(여학생 3.2%)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흡연학생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기초조사에서 얻은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흡연률은 22.7%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심각하게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문제에 우려의 빛이 짙다.

강영규(2002)의 연구는 흡연자가 불안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며, 박영선(2001)도 흡연자의 불안 정도가 비흡연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애숙(2003)도 흡연자에게서 우울, 불안, 분노성향이 높다고 보고한다.

우울은 흡연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정서장애로 흡연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비행과 약물남용의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3. 관련 선행연구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한 정서행동문제나 정서행동특성 연구는 미비하여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나 청소년 관련 정서행동문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경희(2016)의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증상과 대처 및 우울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남자 고등학생 총 427명(일반계 고 223, 특성화 고 204)이었다. 결과는 일반계고 남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우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이 우울한 이유로는 학업문제, 친구관계, 자신에 대한 회의, 진로/취업으로 나타났다. 우울

1) 청소년 흡연률은 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로 성인흡연률(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과 지표 정의가 다르다.

한 생각에 대한 해결방법은 일반계고 남학생은 운동하기를, 특성화고 남학생은 아무 것도 안 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반계고 남학생이 특성화고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생각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반계고 남학생은 학업부담을, 특성화고 남학생은 힘들어서를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계고 남학생은 가족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특성화고 남학생은 무서워서라는 반응이 대표적인 이유였다. 또한 일반계고 남학생이 특성화고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홍석일(2012)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에서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의 통제가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다. 학교환경 변인 중에서는 교사의 적대와 정서적 지원은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친구심리특성으로서 친구의 자기효능감은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을수록, 친구의 사회성효능감은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이 많았다.

김미정(2013)의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의 외적보호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내적특질, 정서조절능력의 자기정서이용의 순서로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일반 청소년)의 정서행동특성

장은옥(2011)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에서 내재화문제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갈등, 아버지갈등, 부모전체갈등과 정서행동문제는 정적상관을 가짐으로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부모전체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

머니갈등, 학년, 성별 순으로 내재화문제를, 부모전체갈등, 학년 순으로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200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은 성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다.

이수연, 이승희(2012)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평가는 위축/우울이 가장 높고 총점은 내재화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에 높은 점수가 나타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추측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선행연구결과 내재화문제뿐 아니라 외현화문제에서도 높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또한 관련변인(성별, 학생성적, 학교급별, 교사성별, 교사경력)에 따라 평가자간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생성별은 여학생의 경우, 학생성적은 성적이 낮은 경우, 학교급별은 중학생의 경우, 교사성별은 여교사의 경우, 교사경력은 낮은 경우가 평가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영(2014)은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학교급에 따라 정서행동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고등학교 집단이고, 성별에 따라서는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외현화문제는 중학교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와 다르게 외현화문제는 중학교 남학생집단보다 여학생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회가 변해가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한다.

오영경(2010)은 청소년의 행동문제 관련 요인연구에서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비슷한 수준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행동문제에서

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보면, 청소년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과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직업교육체제 실업계 학교인 특성화계 고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의 1학년 1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345명이다(검사 당일 상담이나 지각 결석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4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전량이 회수되었으며(회수율 : 100%) 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5부를 제외한 340부(98.55%)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Ⅲ-1>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기초 및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표Ⅲ-2>는 최종 연구대상(N= 340)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Ⅲ-1> G시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사항

학교명	계열	학과(전공)	합계	
			학급수	학생수
G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보건(가사)	조리과학과/식품과학과/식물과학과/애완동물과	21	660
G공업고등학교	공업	정밀기계과/기계시스템과/기계설비과/전기과/전자과/토목과/건축과/컴퓨터응용설계과/메카트로닉스과/광기술정보과/신소재응용과	50	1,633
J공업고등학교	공업	기계과/산업설비검사과/전기과/화학공업과/토목과/건축디자인과/건설정보과	41	1,358
G전자공업고등학교	공업	전기과/자동화기계과/전자통신과/자동차과/디자인과/환경시스템과/전산응용기계과/전자기계과	41	1,422
G경영고등학교	상업	금융서비스과/회계서비스과/비서사무서비스과/정보통신과/디지털컨텐츠과/세무행정과	20	648
S고등학교	공업	자동화기계과/자동차과/건축인테리어과/신재생에너지과	24	792
K공업고등학교	공업	기계과/전기전자과/생명화학공과/첨단장비정비과/통신전자과/생명정보화학공과/디지털기계과	26	829
D전자정보고등학교	공업	토탈뷰티과/광전자통신과/디지털전자과/인터넷정보과	36	1,236
G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글로벌비즈니스과/디자인과/콜마케팅과	24	816
J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글로벌경영과/글로벌금융과/글로벌디자인과/간호과/디지털디자인과/디지털경영과	26	889
S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콜마케팅과/금융비즈니스과/컴퓨터디자인과 /보건행정과	24	799
SJ여자상업고등학교	농업·보건(가사)	간호과/디자인과/정보처리과	31	1,022
총계			376	12,342

<표Ⅲ-2>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N = 340)

특성	구분	n (%)	계 (%)
성별	남	142(41.7%)	340(100%)
	여	198(58.3%)	
종교	유	131(38.5%)	340(100%)
	무	209(61.4%)	
	무표기	1(0.1%)	
가정경제수준	하류층	85(25%)	340(100%)
	중류층	234(68.8%)	
	상류층	21(6.2%)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	공립	138(40.5%)	340(100%)
	사립	202(59.5%)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¹⁾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	55(16.2%)	340(100%)
	상업계열	114(33.5%)	
	공업계열	171(50.3%)	
전공만족도	아주 만족한다.	40(11.8%)	340(100%)
	만족한다.	133(39.1%)	
	보통이다.	135(39.7%)	
	불만이다.	32(9.4%)	
입학동기	인문계 진학 성적이 안 되어서	45(13.2%)	340(100%)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27(8%)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	152(44.7%)	
	적성이 특성화고등학교 에 맞아서	68(20%)	
	부모님의 권유로	14(4.1%)	
	기타	34(10%)	

1)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남 8명, 여 47명), 상업계열(남 14명, 여 100명), 공업계열(남 149명, 여 22명).

<표Ⅲ-2> 계속

특성	구분	n (%)	계 (%)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	2시간 미만	82(24.3%)	340(100%)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142(41.8%)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71(20.9%)	
	6시간 이상	44(12.9%)	
	무표기	1(0.1%)	
최근 한 달 동안 흡연 유무	유	77(22.7%)	340(100%)
	무	262(77.3%)	
	무표기	1(0.1%)	
하루 평균 흡연량	1개비 미만	13(3.8%)	77(22.7%) ²⁾
	1~5개비 미만	28(8.2%)	
	6~10개비 미만	25(7.4%)	
	11~20개비 미만	9(2.6%)	
	21~30개비 미만	2(0.6%)	

2) 최근 한 달 동안 흡연 유경험자

<표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은 여학생 142명(41.7%), 남학생 198명(58.3%),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별로 공립 138명(40.5%), 사립 202명(59.5%)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은 공업계열 171명(50.3%), 상업계열 114명(33.5%),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가사계열) 55명(16.2%)순으로 나타났다. 입학동기는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 152명(44.7%), 적성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아서 68명(20%),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던 3가지 입학동기인 인문계 진학 성적이 안 되어서 45명(13.2%)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27명

(8%)와 부모님의 권유 14명(4.1%)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정경제수준은 중류층 234명(68.8%), 하류층 85명(25%), 상류층 21명(6.2%)의 순으로 중하류층이 90%가 넘는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은 2시간 이상이 257명(75.6%)로, 전문가들의 권고사용시간(2시간 이하)을 무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3/4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흡연 유무는 흡연자가 77명(22.7%)으로 나타났다. 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른 남자고등학생의 흡연률은 11.9%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률은 2배에 달한다.

3. 연구도구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대상학생의 기초사항 질문지와 정서행동특성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 기초사항 질문지

기초사항은 연구대상에 대한 문항(성별, 종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 특성화계열, 가정경제수준,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 흡연 유무, 하루 평균 흡연량)으로 구성되었다.

2) 정서행동특성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 K-YSR)(오경자, 김영아, 2011)을 사용하였다. K-YSR은 11~18세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로, 청소년 본인의 평가를 통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정서행동문제를 평가

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K-YSR은 적응척도와 문제행동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들과 관련된 문제행동척도만 사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6개월내에 각 문항에 서술된 행동을 보였는지를 판단하고,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가끔 그렇거나 그런편이다),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한다.

K-YSR은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8개 하위 증후군척도로 발전시켰고, 특정한 증후군으로 포함되지 않은 문항들은 기타문제로 분류하였다.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은 내재화문제 척도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은 외현화문제 척도로, 그리고 총문제행동 척도를 포함하여 11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는 기준을 두 단계로 나누어 임상범위(clinical range)와 준임상범위(boardline clinical range)로 표시한다. 문제행동총점, 내재화, 외현화 척도의 경우 T점수가 65T 이상일 때 임상 범위로 판단되며, T점수가 60T 미만은 정상 범위(normal range), 총 T점수가 60-64을 준임상 범위로 판단된다. 하위척도인 문제행동증후군척도, T점수가 70T 이상일 때 임상 범위로 판단되며, T점수가 65T 미만은 정상 범위(normal range), 총 T점수가 65-69을 준임상 범위로 판단한다.

<표III-3>는 아동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 별 문제행동척도의 요인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표III-3> 아동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검사별 문제행동척도의 구성

요인명		문항수		내용 및 점수계산
		YSR		
증후군 척도	내재화	① 불안/우울	13(0-26)	불안/우울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② 위축/우울	8(0-16)	위축/우울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③ 신체증상	10(0-20)	신체증상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⑩ 내재화 총점	31(0-62)	① 불안/우울+② 위축/우울+③ 신체증상	

<표Ⅲ-3> 계속

요인명		문항수		내용 및 점수계산
		YSR		
증후군 척도	외현화	④ 규칙위반	15(0-30)	규칙위반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⑤ 공격행동	17(0-34)	공격행동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⑪ 외현화 총점		32(0-64)	④ 규칙위반+⑤ 공격행동
	⑥ 사회적 미성숙		11(0-22)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⑦ 사고문제		12(0-24)	사고문제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⑧ 주의집중문제		9(0-18)	주의집중문제과 관련된 문항의 합
	⑨ 기타문제		10(0-20)	기타문제 문항의 합
⑫ 문제행동 총점		105(0-210)	⑩ 내재화 총점+⑪ 외현화 총점+⑥ 사회적 미성숙+⑦ 사고문제+⑧ 주의집중문제+⑨ 기타문제	

4. 연구절차

G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선정된 학교에 본 연구의 연구 취지와 질문지 배포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작성 방법과 작성시간을 학교에 공지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듣고 질문지 배포를 수락한 학교를 방문하여 재학생(1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3일부터 약 20일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각 학교별로 진로선생님 한 분을 추천받아 유선전화를 통하여 설문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취지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인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하여 이해가 어려운 문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에서 본인의 정서행동문제 질문 응답으로 30-5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전원으로부터 345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검사 당일 결석자 및 지각자 기타 이유로 미참여자는 제외) 그 가운데 불성실한 질문지 5부

를 제외한 34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질문지 회수 상황은 <표Ⅲ-4>에 제시되어 있다.

<표Ⅲ-4> 질문지 회수 상황

학교명	계열	학과(전공)	합계		
			학급	정원	회수량
G자연과학고등학교	농업·보건(가사)	식품과학과	1	31	31
G공업고등학교	공업	정밀기계과	1	30	29
J공업고등학교	공업	산업설비검사과	1	31	26
G전자공업고등학교	공업	환경시스템과	1	31	30
G경영고등학교	상업	디지털컨텐츠과	1	33	27
S고등학교	공업	자동차과	1	32	29
K공업고등학교	공업	생명화학공과	1	31	30
D전자정보고등학교	공업	토탈뷰티과	1	32	30
G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글로벌비즈니스과	1	32	29
J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글로벌경영과	1	32	29
S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	세무보건행정과	1	32	30
SJ여자상업고등학교	농업·보건(가사)	간호과	1	28	25
총계			12	375	345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YSR 8개 하위 증후군별로 평균, 표준편차와 평균순위를 산출하였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K-YSR 8개 하위 증후군별로 유형의 빈도, 비율, 비율순위를 산출하였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 는 유형의 빈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성별, 종교유무, 가정경제수준,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스마트폰사용량,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1개 척도별로 t -검증 또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 정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YSR 8개 하위 증후군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순위를 그리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IV-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분석결과

척도	<i>M</i>	<i>SD</i>	평균순위
불안/우울	54.0	6.311	6
위축/우울	55.02	6.968	1
신체증상	54.79	6.868	2
사회적미성숙	54.05	6.188	5
사고문제	54.67	6.220	3
주의집중문제	53.89	7.118	7
규칙위반	54.46	6.360	4
공격행동	52.53	5.041	8
내재화문제	50.17	11.252	--
외현화문제	54.00	6.311	--
총문제행동	48.96	11.587	--

<표IV-1> 와 같이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위축/우울이 T점수의 평균 55.0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이는 위축/우울 척도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체증상($M=54.79$, $SD=6.87$), 사고문제($M=54.67$, $SD=6.22$), 규칙위반($M=54.46$, $SD=6.36$), 사회적미성숙($M=54.05$, $SD=6.19$), 불안/우울($M=54.0$, $SD=6.31$), 주의집중문제($M=53.89$, $SD=7.12$), 공격행동($M=52.53$, $SD=5.04$)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척도 T점수의 평균은 각각 50.17($SD=11.25$), 54.0($SD=6.31$), 48.96($SD=11.58$)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는 T점수의 평균수준으로, 외현화문제는 T점수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총문제행동 척도 T점수의 평균은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K-YSR 8개 하위증후군별로 유형의 빈도, 비율, 비율순위를 그리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는 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V-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IV-2>와 같이 8개 하위 증후군별로 유형의 빈도, 비율로 불안/우울은 정상 318(93.6%), 준임상 13(3.8%), 임상 9(2.6%), 위축/우울은 정상 301(88.6%), 준임상 25(7.3%), 임상 14(4.1%), 신체증상은 정상 311(91.6%), 준임상 19(5.5%), 임상 10(2.9%), 사회적미성숙은 정상 316(93%), 준임상 11(3.2%), 임상 13(3.8%), 사고문제는 정상 310(91.3%), 준임상 25(7.3%), 임상 5(1.4%), 주의집중문제는 정상 313(92.1%), 준임상 13(3.8%), 임상 14(4.1%), 규칙위반은 정상 312(91.8%), 준임상 13(3.8%), 임상 15(4.4%), 공격행동은 정상 327(95.4%), 준임상 8(2.3%), 임상 8(2.3%)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8개 하위 증후군별 (준)임상 비율 순위는 위축/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고문제, 신체증상, 규칙위반, 주의집중문제, 사회적미성숙, 불안/우울, 공격행동순으로 나타났다.

<표IV-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분석결과

척도	임상유형						계(%)	(준)임상 비율	(준) 임상 비율 순위
	정상		준임상		임상				
	<i>n</i>	%	<i>n</i>	%	<i>n</i>	%			
불안/우울	318	93.6	13	3.8	9	2.6	340(100%)	22(6.4%)	7
위축/우울	301	88.6	25	7.3	14	4.1	340(100%)	39(11.4%)	1
신체증상	311	91.6	19	5.5	10	2.9	340(100%)	29(8.4%)	3
사회적미성숙	316	93	11	3.2	13	3.8	340(100%)	24(7.0%)	6
사고문제	310	91.3	25	7.3	5	1.4	340(100%)	30(8.7%)	2
주의집중문제	313	92.1	13	3.8	14	4.1	340(100%)	27(7.9%)	5
규칙위반	312	91.8	13	3.8	15	4.4	340(100%)	28(8.2%)	4
공격행동	327	95.4	8	2.3	8	2.3	340(100%)	16(4.6%)	8
내재화문제	269	79.2	38	11.1	33	9.7	340(100%)	20.8	--
외현화문제	297	87.5	20	5.8	23	6.7	340(100%)	12.5	--
총문제행동	283	83.4	22	6.4	35	10.2	340(100%)	16.6	--

그리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유형의 빈도와 비율은 내재화문제가 정상 269(79.2%) 준임상 38(11.1%), 임상 33(9.7%)로, 외현화문제는 정상 297(87.5%), 준임상 20(5.8%), 임상 23(6.7%)로, 총문제행동은 정상 283(83.4%), 준임상 22(6.41%), 임상 35(10.2%)로 나타났다. 외현화문제보다 내재화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성별, 종교유무, 가정경제수준,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스마트폰사용량,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1개 척도별로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V-3> 에 제시되어 있다.

<표IV-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결과

척도	구분	성별		종교유무		가정경제수준		
		남	여	유	무	상(a)	중(b)	하(c)
		n=171	n=169	n=130	n=209	n=23	n=231	n=86
불안/ 우울	M	52.56	55.46	54.40	53.77	51.35	53.00	57.40
	(SD)	4.742	7.305	6.478	6.218	3.242	5.249	8.081
	t/F	-4.356 ***		.892		19.245 ***		
	사후분석	--		--		c>b>a		
위축/ 우울	M	53.62	55.98	55.55	53.34	51.09	54.41	57.70
	(SD)	5.265	8.019	8.081	5.975	2.021	6.740	7.563
	t/F	-3.206 **		1.569		11.576 ***		
	사후분석	--		--		c>b>a		
신체 증상	M	53.62	55.98	55.55	54.34	53.17	54.39	56.31
	(SD)	5.265	8.019	8.081	5.975	4.529	6.190	8.695
	t/F	-3.206 **		1.569		3.196 *		
	사후분석	--		--		c>b>a		
사회적 미성숙	M	52.85	55.27	54.39	53.86	51.83	53.32	56.63
	(SD)	5.179	6.869	6.312	6.125	2.964	5.781	7.106
	t/F	-3.659 ***		.767		11.210 ***		
	사후분석	--		--		c>b>a		
사고 문제	M	54.04	55.31	55.05	54.45	54.96	53.66	57.30
	(SD)	5.982	6.407	6.571	6.003	6.958	5.384	7.318
	t/F	-1.893		.869		11.446 **		
	사후분석	--		--		c>a>b		
주의집중 문제	M	53.07	54.72	54.69	53.41	52.87	53.08	56.33
	(SD)	6.863	7.294	8.196	6.341	5.030	6.452	8.649
	t/F	-2.143 *		1.619 **		6.997 **		
	사후분석	--		--		c>b>a		
규칙 위반	M	54.38	54.54	54.71	54.33	54.65	54.03	55.57
	(SD)	6.195	6.539	6.708	6.153	5.556	5.841	7.695
	t/F	-.229		.537		1.867		
	사후분석	--		--		--		
공격 행동	M	51.94	53.13	53.18	52.14	51.65	51.92	54.41
	(SD)	4.120	5.778	5.719	4.549	3.459	4.059	6.993
	t/F	-2.186 *		1.840		8.336 ***		
	사후분석	--		--		c>b>a		
내재화문 제	M	46.86	53.53	50.92	49.79	44.39	48.77	55.49
	(SD)	10.279	11.229	11.501	11.063	8.643	10.651	11.648
	t/F	-5.712 ***		.903		17.834 ***		
	사후분석	--		--		c>b>a		
외현화문 제	M	45.69	48.57	48.68	46.26	44.39	45.82	51.35
	(SD)	11.048	12.252	12.346	11.181	11.726	10.622	13.545
	t/F	-2.275 *		1.856		4.904 **		
	사후분석	--		--		c>b>a		
총문제행 동	M	46.17	51.78	50.24	48.29	43.65	47.42	54.51
	(SD)	11.038	11.475	11.968	11.192	11.195	10.647	12.288
	t/F	-4.596 ***		1.520		13.457 ***		
	사후분석	--		--		c>b>a		

* $p < .05$; ** $p < .01$; *** $p < .001$.

<표IV-3> 계속됨

척도	구분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공립	사립	농업/보건(a) (가사)	상업(b)	공업(c)	매우만족(a)	만족(b)	보통(c)	불만족(d)
		n=139	n=201	n=56	n=114	n=170	n=40	n=133	n=135	n=32
불안/ 우울	M	53.65	54.24	54.64	55.86	52.54	53.63	53.89	53.96	55.13
	(SD)	5.823	6.632	7.212	7.077	4.988	7.242	6.761	5.714	5.684
	t/F	-.839		10.318 ***			.400			
사후분석	--		b>a>c			--				
위축/ 우울	M	54.71	55.23	55.63	57.13	53.40	53.35	54.14	55.94	56.88
	(SD)	6.691	6.982	6.648	7.729	6.106	5.718	6.250	7.042	9.741
	t/F	-.672		10.610 ***			3.078 *			
사후분석	--		b>a>c			d>c>b>a				
신체 증상	M	54.13	55.25	54.13	56.22	53.84	54.23	63.99	55.96	63.91
	(SD)	6.470	7.109	6.080	7.418	6.595	7.840	6.410	7.225	5.288
	t/F	-1.480		4.189 *			2.184			
사후분석	--		b>a>c			--				
사회 적 미성 숙	M	54.04	54.06	54.34	56.18	52.53	53.20	53.73	54.17	55.97
	(SD)	6.140	6.237	5.718	7.549	4.758	5.814	6.120	5.853	7.962
	t/F	-.024		12.808 ***			1.418			
사후분석	--		b>a>c			--				
사고 문제	M	54.63	54.70	54.27	56.38	53.65	54.30	54.26	55.10	55.00
	(SD)	6.259	6.209	5.532	6.924	5.705	6.753	5.954	6.456	5.731
	t/F	-1.103		6.916 **			.490			
사후분석	--		b>a>c			--				
주의 집중 문제	M	54.15	54.67	54.16	55.28	52.86	52.48	52.46	54.81	57.69
	(SD)	6.050	6.571	8.052	7.366	6.471	5.948	5.729	7.275	10.535
	t/F	-.742		4.052 *			6.408 ***			
사후분석	--		b>a>c			d>c>a>b				
규칙 위반	M	54.15	54.67	53.11	55.03	54.52	54.08	53.78	54.63	57.03
	(SD)	6.050	6.571	5.858	6.541	6.366	7.509	5.820	6.057	7.710
	t/F	-.742		1.735			2.356			
사후분석	--		--			--				
공격 행동	M	51.74	53.08	52.05	53.47	52.06	51.28	52.02	52.81	55.06
	(SD)	3.881	5.652	4.848	5.727	4.527	3.030	4.297	4.924	8.534
	t/F	-2.424 *		3.026			4.221 **			
사후분석	--		--			d>c>b>a				
내재 화문 제	M	49.12	50.91	51.86	54.38	46.80	47.40	48.77	51.89	52.25
	(SD)	10.88	11.46	10.491	10.911	10.688	12.770	11.44	10.33	11.141
	t/F	-1.445		17.834 ***			2.963 *			
사후분석	--		b>a>c			d>c>b>a				
외현 화문 제	M	45.76	48.06	45.39	49.89	45.84	43.85	45.82	48.16	52.22
	(SD)	10.66	12.35	11.802	11.533	11.579	11.621	11.26	10.88	15.195
	t/F	-1.780		4.904 **			4.057 **			
사후분석	--		b>c>a			d>c>b>a				
총문 제행 동	M	47.68	49.84	49.57	53.03	46.03	45.18	47.79	50.46	52.22
	(SD)	1.987	11.93	11.184	11.352	11.068	13.769	11.44	10.60	11.878
	t/F	-1.692		13.457 ***			3.551 *			
사후분석	--		b>a>c			d>c>b>a				

* $p < .05$; ** $p < .01$; *** $p < .001$.

<표IV-3> 계속됨

척도	구분	입학동기				
		성적(a) (인문계 진학 성적이 안되어서)	대학진학(b)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취업(c)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	적성(d) (적성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아서)	권유(e) (부모님의 권유로)
		<i>n</i> =45	<i>n</i> =27	<i>n</i> =152	<i>n</i> =68	<i>n</i> =14
불안/ 우울	<i>M</i>	54.20	51.96	53.80	54.85	55.86
	(<i>SD</i>)	7.095	3.818	6.381	6.410	7.543
	<i>t/F</i>	1.103				
	사후분석	--				
위축/ 우울	<i>M</i>	56.22	53.74	54.74	54.65	56.14
	(<i>SD</i>)	6.234	5.572	6.626	6.501	10.114
	<i>t/F</i>	.736				
	사후분석	--				
신체 증상	<i>M</i>	54.47	54.74	54.81	54.22	54.71
	(<i>SD</i>)	7.047	5.267	6.509	6.260	5.980
	<i>t/F</i>	.463				
	사후분석	--				
사회 적 미성 숙	<i>M</i>	54.91	52.63	54.38	53.10	55.00
	(<i>SD</i>)	6.519	5.644	6.318	5.020	7.736
	<i>t/F</i>	.927				
	사후분석	--				
사고 문제	<i>M</i>	54.84	53.63	54.65	54.68	57.29
	(<i>SD</i>)	6.285	5.379	6.599	5.521	8.389
	<i>t/F</i>	.669				
	사후분석	--				
주의 집중 문제	<i>M</i>	55.53	51.00	54.07	52.71	56.71
	(<i>SD</i>)	8.846	3.223	7.514	5.005	8.543
	<i>t/F</i>	2.282 *				
	사후분석	a>c>d>b				
규칙 위반	<i>M</i>	55.18	52.74	54.66	53.06	54.86
	(<i>SD</i>)	6.813	5.558	6.497	4.995	9.363
	<i>t/F</i>	2.023				
	사후분석	--				
공격 행동	<i>M</i>	52.69	50.81	52.64	52.04	54.57
	(<i>SD</i>)	4.410	2.386	5.485	4.159	8.169
	<i>t/F</i>	1.412				
	사후분석	--				
내재 화문 계	<i>M</i>	51.33	48.59	49.80	50.26	50.07
	(<i>SD</i>)	11.138	8.299	11.123	11.383	14.959
	<i>t/F</i>	.316				
	사후분석	--				
외현 화문 계	<i>M</i>	47.93	44.89	47.50	45.47	48.71
	(<i>SD</i>)	12.196	8.059	12.093	10.213	18.886
	<i>t/F</i>	.721				
	사후분석	--				
총문 제행 동	<i>M</i>	50.18	46.11	49.21	48.09	50.79
	(<i>SD</i>)	12.480	8.285	11.703	10.552	15.914
	<i>t/F</i>	.596				
	사후분석	--				

p*< .05 ; *p*< .01 ; ****p*< .001.

<표IV-3> 계속됨

척도	구분	스마트폰 사용량				흡연유무	
		2시간 미만(a)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b)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c)	6시간 이상(d)	유	무
		n=82	n=140	n=74	n=44	n=78	n=262
불안/우울	M	53.99	54.26	53.12	54.68	53.32	54.20
	(SD)	5.734	6.971	5.873	5.870	6.123	6.364
	t/F	.725				-1.083	
	사후분석	--				--	
위축/우울	M	55.98	54.66	54.49	55.25	53.15	55.57
	(SD)	7.218	6.601	6.750	7.980	4.970	7.377
	t/F	.795				-2.716 **	
	사후분석	--				--	
신체증상	M	54.01	54.19	55.97	56.16	56.28	54.35
	(SD)	5.625	5.629	9.401	7.288	8.964	6.057
	t/F	2.037				2.196 *	
	사후분석	--				--	
사회적 미성숙	M	53.61	54.03	53.88	55.25	53.96	54.08
	(SD)	5.669	6.611	5.743	6.492	6.429	6.127
	t/F	.708				-.148	
	사후분석	--				--	
사고문제	M	54.28	54.47	54.93	55.25	55.50	54.42
	(SD)	6.052	6.250	6.469	6.161	6.980	5.968
	t/F	.288				1.348	
	사후분석	--				--	
주의집중문제	M	53.15	53.36	53.69	57.27	54.42	53.73
	(SD)	6.443	6.566	6.778	9.495	8.633	6.611
	t/F	3.988 **				.755	
	사후분석	d>c>b>a				--	
규칙위반	M	52.52	54.34	55.35	56.95	59.51	52.95
	(SD)	4.767	5.717	7.768	7.282	8.000	4.873
	t/F	5.502 **				8.863 ***	
	사후분석	d>c>b>a				--	
공격행동	M	51.44	52.23	52.70	55.25	53.64	52.20
	(SD)	3.528	4.416	5.178	7.625	6.094	4.645
	t/F	6.000 **				2.226 *	
	사후분석	d>c>b>a				--	
내재화문제	M	49.46	50.29	49.51	52.25	48.76	50.60
	(SD)	11.857	10.654	11.847	11.041	11.846	11.058
	t/F	.696				-1.268	
	사후분석	--				--	
외현화문제	M	42.39	47.56	47.82	63.34	52.31	45.58
	(SD)	11.360	9.848	12.344	13.650	13.481	10.713
	t/F	9.366 ***				4.577 ***	
	사후분석	d>c>b>a				--	
총문제행동	M	46.66	48.87	48.84	53.73	50.47	48.51
	(SD)	11.440	10.790	12.436	11.815	13.087	11.089
	t/F	3.50 *				1.317	
	사후분석	d>b>c>a				--	

* $p < .05$; ** $p < .01$; *** $p < .001$.

1) 성별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t -검증 결과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우울/불안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이 55.46($SD=7.31$)로 남학생의 평균 52.56($SD=5.2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위축/우울은 여학생의 평균이 55.98($SD=8.019$)으로 남학생의 평균 53.62($SD=5.26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체증상도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이 55.98($SD=8.019$)으로 남학생의 평균 53.62($SD=5.2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미성숙도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이 55.27($SD=6.869$)으로 남학생의 평균 52.85($SD=5.1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의집중문제도 여학생의 평균이 54.72($SD=7.294$)으로 남학생의 평균 53.07($SD=6.683$)보다 높게 나타났고, 공격행동에서도 여학생의 평균 53.13($SD=5.778$)이 남학생 51.94($SD=4.1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고문제와 규칙위반을 제외한 6개 척도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여학생의 평균 53.53($SD=11.229$)이 남학생 46.86($SD=10.27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문제에서도 여학생의 평균 48.57($SD=12.252$)이 남학생 45.69($SD=11.0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문제행동에서도 여학생의 평균 51.78($SD=11.475$)이 남학생 46.17($SD=11.0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개 상위 증후군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t*-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3>와 같이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t*-검증 결과 주의집중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의집중문제에서만 유(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54.69(*SD*=8.196)으로 무(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평균 53.41(*SD*=6.341)에 비해 차이는 크지 않지만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F*-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IV-3>와 같이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F*-검증 결과 규칙위반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불안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7.40(*SD*=8.081)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3.00(*SD*=5.249)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1.35(*SD*=3.2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축/우울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7.70(*SD*=7.563)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4.41(*SD*=6.740)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1.09(*SD*=2.0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증상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6.31(*SD*=8.695)으로 가정

경제수준(중)의 평균 54.39($SD=6.190$)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3.17($SD=4.5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미성숙도 살펴보면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6.63($SD=7.106$)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3.32($SD=5.781$)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1.83($SD=2.9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고문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7.30($SD=7.318$)으로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4.96($SD=6.958$)와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3.66($SD=5.3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의집중문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6.33($SD=8.649$)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3.08($SD=6.452$)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2.87($SD=5.0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격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4.41($SD=6.993$)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51.92($SD=4.059$)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51.65($SD=3.4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규칙위반을 제외한 7개 영역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모두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가장 높고, 대부분이 가정경제수준(중), 가정경제수준(상)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5.49($SD=11.648$)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48.77($SD=10.651$)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44.39($SD=8.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문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1.35($SD=13.545$)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45.82($SD=10.622$)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44.39($SD=11.7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문제행동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54.51($SD=12.288$)으로 가정경제수준(중)의 평균 47.42($SD=10.647$)와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 43.65($SD=11.19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 모든 영역에서 가정경제수준(하)가 가정경제수준(중)과 가정경제수준(상)보다 상당히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t*-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났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공격행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격행동에서만 사립의 평균이 53.08(*SD*=5.652)으로 공립의 평균 51.74(*SD*=3.881)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F*-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F*-검증 결과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우울/불안을 먼저 살펴보면 상업(b)계열의 평균이 55.86(*SD*=7.07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 54.64(*SD*=7.212)이, 공업(c)계열이 52.54(*SD*=4.98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위축/우울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7.13(*SD*=7.72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 평균 55.63(*SD*=6.648)로, 공업(c)계열이 53.40(*SD*= 6.106)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신체증상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6.22(*SD*=7.41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 54.13(*SD*=6.080)이, 공업(c)계열이 53.84(*SD*=6.595)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사회적 미성숙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6.18(*SD*=7.54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a)(가사계열)의 평균 54.34(*SD*=5.718)이 공업(c)계열이 52.53(*SD*=4.75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사고문제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6.38(*SD*=6.9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평균이 54.27($SD=5.532$), 공업(c)계열이 53.65($SD=5.705$)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주의집중문제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5.28($SD=7.3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이 54.16($SD=8.052$)로, 공업(c)계열이 52.86($SD=6.471$)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을 제외한 6개 척도에서 상업(b)계열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4.38($SD=10.91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 51.86($SD=10.491$)이, 공업(c)계열이 46.80($SD=10.68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외현화문제에서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49.89($SD=11.53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 45.39($SD=11.802$)으로, 공업(c)계열이 45.84($SD=11.579$)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총문제행동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53.03($SD=11.3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업/보건(가사)(a)계열의 평균이 49.57($SD=11.184$)로, 공업(c)계열이 46.03($SD=11.06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상업(b)계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농업/보건(가사)(a)계열로 나타났다.

6)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F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F -검증 결과 위축/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축/우울을 살펴보면 불만족(d)의 평균이 56.88($SD=9.74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으로 55.94($SD=7.042$)로, 만족(b)이 54.14($SD=6.250$)으로, 매우만족(a)이

53.35($SD=5.71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주의집중문제도 불만족(d)의 평균이 57.69($SD=10.5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의 평균이 54.81($SD=7.275$)로, 만족(b)은 52.46($SD=5.729$)로, 매우만족(a)이 52.48($SD=5.94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공격행동도 불만족(d)의 평균이 55.06($SD=8.53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의 평균이 52.81($SD=4.924$)로, 만족(b)이 52.02($SD=4.927$)으로, 매우만족(a)이 51.28($SD=3.030$)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규칙위반을 제외한 3개 척도 위축/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불만족(d)의 평균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불만족(d)의 평균이 52.25($SD=11.14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으로 51.89($SD=10.335$)로, 만족(b)은 48.77($SD=11.446$)로, 매우만족(a)이 47.40($SD=12.770$)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외현화문제에서도 불만족(d)의 평균이 52.22($SD=15.19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으로 48.16($SD=10.88$)로, 만족(b)이 45.82($SD=11.261$)으로, 매우만족(a)이 43.85($SD=11.621$)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총문제행동에서도 불만족(d)의 평균이 52.22($SD=11.87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으로 50.46($SD=10.601$)로, 만족(b)은 47.79($SD=11.444$)로, 매우만족(a)이 45.18($SD=13.769$)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불만족(d)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입학동기)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F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F -검증 결과 주의집중문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동기에 따른 주의집중문제의 차이는 부모님의 권유로(e)의 평균이 56.71($SD=8.5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인문계 진학성적이 안 되어서(a)가 55.53($SD=8.85$),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c)가 54.07($SD=7.51$), 적성이 특성화고와 맞아서(d)가 52.71($SD=5.0$)로,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b)가 51.0($SD=3.22$)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8)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F*-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F*-검증 결과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의집중문제도 6시간이상(d)의 평균이 57.27($SD=9.49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시간이상6시간미만(c)의 평균이 53.69($SD=6.778$)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b)은 53.36($SD=6.566$)로, 2시간미만(a)이 53.15($SD=6.443$)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규칙위반도 6시간이상(d)의 평균이 56.95($SD=7.28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시간이상6시간미만(c)으로 55.35($SD=7.768$)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b)은 54.34 ($SD=5.717$)로, 2시간미만(a)이 52.52($SD=4.767$)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공격행동도 6시간이상(d)의 평균이 55.25($SD=7.62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시간이상6시간미만(c)으로 52.70($SD=5.178$)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b)은 52.23($SD=4.416$)로, 2시간미만(a)이 51.44($SD=3.528$)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3개 하위증후군별척도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6시간이상(d)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현화문제에서는 6시간이상(d)의 평균이 63.34($SD=13.6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시간이상6시간미만(c)으로 47.82($SD=12.344$)로, 2시간이상4시간미만(b)은 47.56($SD=$

9.848)로, 2시간미만(a)이 42.39($SD=11.360$)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총문제행동에서도 6시간이상(d)의 평균이 53.73($SD=11.81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시간이상4시간미만(b)은 48.87($SD=10.790$)로, 4시간이상6시간미만(c)으로 48.84($SD=12.436$)로, 2시간미만(a)이 46.66($SD=11.440$)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6시간이상(d)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로 나타난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3>와 같이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t -검증 결과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축/우울을 살펴보면 특이하게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이 55.57($SD=7.377$)로 유(흡연 학생)의 평균 53.15($SD=4.9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체증상은 유(흡연 학생)의 평균 56.28($SD=8.964$)이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 54.35($SD=8.9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칙위반에서는 유(흡연 학생)의 평균 59.51($SD=8.0$)이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 52.95($SD=4.873$)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격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흡연 학생)의 평균 53.64($SD=6.094$)이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 52.20($SD=4.645$)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외현화문제에서는 유(흡연 학생)의 평균 52.31($SD=13.481$)이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 45.58($SD=10.7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문제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V. 논의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YSR 8개 하위 증후군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순위를 그리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는데, 8개 하위증후군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 행동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8개 하위증후군별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위축/우울이 T점수의 평균 55.0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신체증상 54.79, 사고문제 54.67, 규칙위반 54.46, 사회적미성숙 54.05, 불안/우울 54.0, 주의집중문제 53.89, 공격행동 52.53순으로 나타났다. 손신영(2012)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박병금도(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우울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원인이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회진출에 대한 갈등과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위축/우울이 두드러지는 원인은 바로 소질과 적성보다 ‘인문계 진학 성적이 되지 않아’ 열등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이어지는 기초수학능력부진과 직업기초능력부진으로 인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중고를 겪고 위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대상이 일반 청소년(G시 소재 중학교 3학년 220명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223명)인 이수연, 이승희의(2012)의 연구와 본 연구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표 V

-1>같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증상과 사회적 미성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영역은 오히려 일반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여러 과업들을 짊어지고 성인기로 이행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다소 심각한 정신건강상황으로 볼 수 있다.

서경희(2016)는 일반계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보다 과도한 입시경쟁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어려움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어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재화문제는 *T*점수의 평균이 50.17로 일반 청소년의 내재화문제(51.48)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수연, 이승희(2012)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평가도 위축/우울이 가장 높고 총점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순으로 나타나 내재화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문제에 높은 점수가 나타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추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T*점수의 평균이 54.0로 나타나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의 정도가 일반 청소년의 외현화문제 49.95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재화문제보다는 외현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음주, 흡연에서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김정관(2004)연구와 일치한다. 인천지역 실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탈행동 차이를 비교한 배용식(2000)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지각, 흡연 등 사소한 문제행동과 본드흡입, 성폭행, 가출 등 심각한 일탈행동에서 더 높은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성인비디오나 유흥업소출입, 이성친구와 성 접촉, 물건 훔침, 약물사용, 본드각성제, 돌아

다니기, 노래방, 이성친구와 데이트 등에서는 실업계나 인문계가 차이가 없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총문제행동은 T점수의 평균이 48.96로, 일반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이 51.08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백승영(2014)의 연구에서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차이를 평균과 순위를 통해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고등학생집단이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M=55.26$), 외현화문제($M=54.91$)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집단이 정서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고등학생집단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장래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이고 지각능력이 성장한 만큼 본인이 느끼는 중압감도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한다.

<표 V-1> 일반 청소년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비교

척도	일반 청소년($N=443$) (이수연, 이승희,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N=340$) (본연구)	
	<i>M</i>	<i>SD</i>	<i>M</i>	<i>SD</i>
불안/우울	54.48	6.36	54.0	6.31
위축/우울	55.84	7.47	55.02	6.97
신체증상	54.16	5.75	54.79	6.87
사회적미성숙	53.96	5.63	54.05	6.19
사고문제	55.10	6.11	54.67	6.22
주의집중문제	54.41	6.42	53.89	7.12
규칙위반	54.75	6.46	54.46	6.36
공격행동	53.87	6.05	52.53	5.04
내재화문제	51.48	10.47	50.17	11.25
외현화문제	49.95	11.37	54.00	6.31
총문제 행동	51.08	10.61	48.96	11.59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8개 하위증후군별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과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위축/우울이 1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고문제 8.7%, 신체증상 8.4%, 규칙위반 8.2%, 주의집중문제 7.9%, 사회적미성숙 7%, 불안/우울 6.4%, 공격행동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수연, 이승희(2012) 연구의 일반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과 비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과 (준)임상의 비율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3개 상위 증후군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내재화문제가 20.8%로, 일반 청소년의 (준)임상의 비율 16.7%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3개 상위 증후군 중에서 내재화문제 (준)임상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황혜원(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낮은 자아존중감, 가족간 높은 갈등, 또래의 높은 비행수준,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찾고 이로 인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위 요인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인문계에 진학할 성적이 되지 않아 위축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채 뚜렷한 목표 없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연이은 성적부진으로 학업스트레스는 과중되고 낮은 경제수준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학생들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의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12.5%로 일반 청소년의 (준)임상의 비율과 비교하면 11%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는 약간 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총문제행동은 16.6%가 (준)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준)임상의 비율과 비교하면 9.4%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백승영의(2014) 연구에서도 학교급에 따른 (준)임상 유형 비율에서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집단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중학생집단으로 17.0%, 초등저집단이 10.5%, 초등고집단이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로 친구와의 갈등, 학업스트레스, 가정의문제(이혼, 편부모, 부모의 폭력), 게임, 이성친구,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중·고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환경제공과 상담, 교육과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백승영, 2014).

<표 V-2> 일반 청소년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비교

척도	일반 청소년(N=443) (이수연, 이승희,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N=340) 본연구					
	정상		준임상		임상		정상		준임상		임상	
	n	%	n	%	n	%	n	%	n	%	n	%
불안/우울	412	93.0	14	3.2	17	3.8	318	93.5	13	3.8	9	2.6
위축/우울	404	91.2	26	5.9	13	2.9	301	88.5	25	7.3	14	4.1
신체증상	424	95.7	13	2.9	6	1.4	311	91.4	19	5.5	10	2.9
사회적미성숙	427	96.4	9	2.0	7	1.6	316	92.9	11	3.2	13	3.8
사고문제	435	98.2	5	1.1	3	0.7	310	91.1	25	7.3	5	1.4
주의집중문제	425	95.9	13	2.9	5	1.1	313	92.0	13	3.8	14	4.1
규칙위반	425	95.5	17	4.1	2	0.5	312	91.7	13	3.8	15	4.4
공격행동	430	97.1	7	1.6	6	1.4	327	96.1	8	2.3	8	2.3
내재화문제	369	83.3	35	7.9	39	8.8	269	79.1	38	11.1	33	9.7
외현화문제	394	88.9	32	7.2	17	3.8	297	87.3	20	5.8	23	6.7
총문제행동	401	90.5	17	3.8	25	5.6	283	83.2	22	6.4	35	10.2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의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고문제와 규칙위반을 제외한 6개 척도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불안이나 위축 등 내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김진호(2013)의 연구결과는 일치하나, 외현화문제에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낸다는 부분은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에게도 외현화문제가 증가하고(서찬란, 이형실, 2004 : 백승영, 2014) 외현화문제가 남녀 구분 없이 크게 증가하고 문제행동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어 외현화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의숙(2009)도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남자도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여자도 공격성이나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총문제행동에서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증후군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인 김수주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002).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공동체주의적 가치는 약화되고, 양성평등의식과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화되어 빠르게 변모해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한다.

2)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주의집중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의집중문제에서만 유(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무(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은희(2006)는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 종교성향이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종교성향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한 Kim(2003)의 연구결과와는 8개 하위증후군별로 평균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상반된다. 일부 소수의 연구에 해당하는 종교성향이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앞으로 종교유무별, 종교유형별, 종교성숙도별 등의 다양한 표집을 통한 연구로 종교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3)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규칙위반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모두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가장 높고 가정경제수준(중), 가정경제수준(상)순으로 나타났다. 하태정(2012)의 연구 즉, 빈곤 가정 청소년일수록 지역사회환경의 무질서 수준이 높고, 지역사회 애착 및 유대 수준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이 낮고 또한 빈곤 가정일수록 부모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도 일반 가정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빈곤은 일상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발달까지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조건이다(Embry, 2004: 홍순혜, 이숙영, 2009).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가정경제수준(중),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할

수록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내면화된 불안·우울이 높고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하태정(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외현화문제에서도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가정경제수준(중), 가정경제수준(상)의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하태정(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4)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공격행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격행동에서만 사립의 평균이 공립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5)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을 제외한 6개 척도에서 상업(b)계열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도 상업(b)계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는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농업/보건(가사)(a)계열로 나타났다.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는 사실상 성별에 따른 차이와 상당한 정도로 연구결과가 비슷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고문제와 규칙위반을 제외한 6개 척도에서 여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흡사하게 학교특성화계열에 따른 차이는 공격행동을 제외한 5개 영역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여학생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b)계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혜선(2013)의 연구도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공업계열로 여학생은 상업계열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을 계열차이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6)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위축/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축/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3개 척도에서 불만족(d)의 평균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도, 불만족(d), 보통(c), 만족(b), 매우 만족(a)순으로 나타났다. 황혜원의 연구(2007)와 같이,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외현화문제도 불만족(d), 보통(c), 만족(b), 매우 만족(a)순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친구의 비행수준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고 청소년의 학교환경 요인이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청소년이 학교환경요인에 부정적일수록 문제경험이 많음을 보고하는 황혜원의 연구(2007)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학교환경특성 중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한 주요 요인은 교사의 관심도와 학업스트레스로 지적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불만족할수록 외현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총문제행동에서도 불만족(d)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c)으로 만족(b), 매우 만족(a)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애(2005)의 연구에 의하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비행, 폭력행동, 약물남용, 성문제행동 순으로 보고한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역시 불만족(d)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영자(2012)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변인이 학교환경 교사수업 교우관계로 나타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여부는 전문지식을 겸비한

교사요인과 학업에 열의가 있는 적성과 흥미를 지닌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공은 취업과 상급학교진학 등의 미래의 진로선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진석(2010)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지원순위와 전공학과선택 요인이 학교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적성과 흥미를 우선순위에 두고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진로지도의 중점요인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전공학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던 학생은 전체의 21.3%에 불과하고, 전공학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몰랐던 학생은 무려 60.1%에 이른다(이정규, 2011).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와도 상반된 것으로 전공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모르는 채 입학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의 필요성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연구와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7)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

입학동기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중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주의집중문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입학동기에 따른 주의집중문제의 차이는 부모님의 권유로(e)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 진학성적이 안 되어서(a), 졸업 후에 취업하려고(c), 적성이 특성화고와 맞아서(d), 대학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b)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흥미가 있거나 대학진학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학습에 있어 좀 더 주의집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오화진의(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생 본인의 뚜렷한 동기나 목표가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 본인의 뚜렷한 동기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부모님의 권유로(e)와 인문계 진학성적이 안 되어서(a), 2가지 입학동기를 가진 학생들에게서 주의집중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여 일찍부터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성격의 학교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진로를 모색하고 선택하여서 고등학교 진학 후 소질과 적성이 맞지않아 겪는 어려움을 미리서 예방하고, 조기에 특히 중학교 과정의 담임교사와 진로지도 교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직업의식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지도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8)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개 척도에서 6시간이상(d)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오래 혹은 과다하게 사용할수록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 금창민(2013)과 윤영숙(2013)과 고충숙(2011)의 연구와 일치한다.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문제행동에서 6시간이상(d)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명희(2008)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열 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지적한다. 스마트폰이 요즘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 경향은 인터넷중독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금창민(2013)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중독 문제와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 경향의 유사성을 밝히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범위가 유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인터넷 중독 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정신건강 문제인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이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스마트폰사용량에 따른 차이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와 스마트폰사용량이나 과다사용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관찰이 요구되며, 정서행동문제와 스마트폰 과다사용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교육적 개입과 중재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9)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8개 하위증후군별로 먼저 살펴보면 위축/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위축/우울을 살펴보면 무(비흡연 학생)의 평균이 유(흡연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많은 연구에서 흡연자에게서 우울, 불안, 분노성향이 높다고 보고하는데(박영선, 2001 : 김애숙, 2003) 본 연구는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흡연이 일부 문제학생들의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흡연 하는 학생들은 친구나 또래집단 속에서 흡연을 학습하고 평범한 학생들인 친구관계 사이에서도 흡연이 늘어나고 놀이문화로까지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김민욱, 2012) 추정하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또래집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일탈심리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흡연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한다.

위축/우울과는 다르게 신체증상과 규칙위반, 공격행동에서 유(흡연 학생)의 평균이 무(비흡연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개 상위 증후군별로 살펴보면 내재화문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외현화문제에서 유(흡연 학생)의 평균이 무(비흡연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쉽게 비행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나승일(2012)은 학교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39.2%) 가장 큰 흡연의 이유라고 지적한다. 흡연량은 2~5개비가 40.7%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1~5개비가 36.4%로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김경숙도(2013)도 남학생일수록, 하교 후 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가족 간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흡연을 많이

하고 흡연정도도 심각하고 흡연정도가 심한 청소년일수록 비행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제시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위축/우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신체증상, 사고문제, 규칙위반, 사회적미성숙, 불안/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이수연, 이승희,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증상과 사회적 미성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영역은 오히려 일반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 높게 나타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는 내재화문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결과(이수연, 이승희,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재화문제는 일반 청소년의 내재화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의 정도는 일반 청소년의 외현화문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재화문제보다는 외현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 청소년은 주로 내재화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8개 하위증후군별로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위축/우울, 사고문제, 신체증상, 규칙위반, 주의집중문제, 사회적미성숙, 불안/우울, 공격행동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이수연, 이승희, 2012)과 비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유형과 (준)임상의 비율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재화 문제 (준)임상의 비율에서도 20.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의 (준)임상의 비율 16.7%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일반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외현화문제의 (준)임상의 비율은 일반 청소년과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관련변인(성별, 종교유무, 가정경제수준, 학교설립유형, 학교특성화계열, 전공만족도, 입학동기, 스마트폰사용량, 흡연유무)에 따라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서행동문제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고문제와 규칙위반을 제외한 6개 척도와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교특성화계열의 차이로 분석한 결과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공업계열로 여학생은 상업계열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짐작한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규칙위반을 제외한 7개 영역인 우울/불안,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위 척도와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서 가정경제수준(하)의 평균이 가장 높고 가정경제수준(중), 가정경제수준(상)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가정경제수준, 빈곤이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 열악한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관통하였다(Embry, 2004: 홍순혜, 이숙영, 2009: 하태정, 2012).

정서행동문제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변인은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이다. 학교환경요인에 부정적일수록 문제경험이 많음을 보고하는 황혜원의 연구(2007)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불만족할수록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전공학과선택 요인은 학교생활만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공은 취업과 미래의 진로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성과 흥미를 우선순위에 두고 전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과 진로지도의 중점요인으로 다루

어려야 할 것을 제안하고 조기에 특히 중학교 과정의 담임교사와 진로지도 교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공에 대한 지식과 직업의식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지도와 교육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서행동특성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과 본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3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에 대한 지역과 연령을 다양하고 포괄적인 표집을 통하여 일반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본인의 평가를 통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연구대상자의 주관성과 불성실성이 반영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할만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청소년 본인 이외 한 명 이상의 보고자에 의한 다각적 평가를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의 정도와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대옥, 강병일, 김기주, 김남진, 김창평 (2012).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강영혜, 박소영 (2008).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강영규 (2002). 천안지역 대학생의 흡연군과 비흡연군간 충동성, 우울 및 불안 정도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기 용인.
- 강성원, 옥준필 (2000).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종구, 김미경, 김영한, 옥정달, 이정규, 이태훈, ... 허명진 (2010).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강화형 (2004).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성남.
- 고충숙 (2011).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
- 권요한, 김수진, 김요섭, 박중휘, 이상훈, 이상휘, ... 정희섭 (2010).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정신건강문제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 김경희 (2004). 아동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 및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兒童學會誌, 25(6), 355-370.
- 김경숙 (2013). 전문계 고등학생의 또래동조성과 흡연정도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북 청주.
- 김미선 (2006).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 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미정 (2013).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 강릉.
- 김민욱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상숙 (2001). 상업계 고등학생의 입학동기와 학교생활 적응 및 진로성숙 수준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숙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휴대전화 의존 및 기능적 활용의 영향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 김애숙 (2003). 흡연군과 비흡연군간 우울 및 스트레스정도 비교 분석 연구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김연화 (2014). 청소년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및 또래요인이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4), 371-382.
- 김용학 (2012). 특성화고등학교에 요구분석을 통한 직업교육개선 방안 요구 : 부천시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유경 (2004).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은희 (2006).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장희, 정성수 (2012). 공업계열 특성화고교생의 직업흥미-전공 일치도, 직업흥미- 포부 일치도,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9(3).
- 김정관 (2004).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신뢰의식, 스트레스, 사회풍토지각 및 일탈행동 차이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정민 (2006). **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남 창원.
- 김진호 (2013). **최신평수교육(제 10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현정 (2016). **남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 및 의사소통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혜선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북 경산.
- 김혜민 (2012).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사례 연구 : 우수특성화 선정 고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권경호기자. (2015.8.25.). “특성화고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 구민신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minnews&logNo=220462634401>
- 나승일 (2012).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육대학원, 서울.
- 남미영 (2011). **부모갈등이 학대를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류성희 (200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진로의식 차이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문경호 (2011). **전문계 고등학교 특색사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문호순 (1999).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학교와 상업계 고등학교의 비교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원, 부산.

-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경기도 과천시 :저자.
- 반의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충북 청주.
- 박병금 (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Mental health & social work**: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31, 208-235.
- 박성하 (2005). 청소년기 애착, 대처양식,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수원.
- 박숙자, 이나미, 최윤희 (2012).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 박양선 (2015).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한 영어수업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박영선 (2001). 잠재력 개발 집단상담이 실업계 여고생의 자아실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울산.
- 박원희, 김기창, 김영일, 김영옥, 이은주, 신현기, ... 양경희 (2009).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박지은 (2015).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진아 (1998). 商業高等學校에 進學한 學生들의 進學動機에 影響을 미치는 環境的 背景에 대한 研究.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창수 기자. (2015.9.23.). “부산교육청, 취업희망자..... ”. 부산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3/0200000000AKR20150923134300051.HTML?input=1179m?fa8d67e0>
- 배용식 (2000). 人文係 高等學生과 實業係 高等學生의 스트레스에 관한 研究 :

-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배원숙 기자. (2013.8.23.).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자녀 인간적 관계형성중요”. 주간교육신문. <http://www.edu-week.com/news/view.asp?idx=3650>
- 백승영 (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유형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저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2014). **2014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저자
- 서경희 (2016). **고등학교 남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 학교유형별 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서영자 (2012).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충청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서울.
- 서인석, 황홍익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職業 教育 研究**, 28(3), 159-180.
- 서찬란, 이형실 (2006). 가족 환경 및 개인 심리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2), 151-162.
- 손득운 (200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 인문계 고등학생의 비교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울산.
- 손신영 (2012).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7(1), 97-106.
- 송달용 (2007).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가준거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안지현 (2007).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학교적응의 관**

- 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오경자, 문혜신, 김영아, 박수경, 김진관 (2001). Dimensional Structure of Emo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1), 37-48.
- 오경자, 김영아 (2011).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형(K-YSR)**. 서울: 휴노.
- 오영경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2(4), 51-64.
- 오화진 (2008).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동기, 성취목표, 학습태도간의 영향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옥준필, 김선태, 김기홍 (2012). **특성화고 교육혁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영숙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인천.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1), 133-164.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4), 727-745.
- 이미애 (2005). **학교환경요인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대구
- 이수연, 이승희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특수교육학연구**, 47(1), 63-85.
-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와 출현율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7-57.
- 임현석 기자. (2015.10.15.). “일반고생, 특성화고 전학-직업”.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2879693&sid1=001>

- 장로 (2013).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명희 (2008). **전문계 공업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문제 행동 유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북 청주.
- 장영숙 (2002).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장은경 (2000).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장은옥 (201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과의 관계.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69-387.
- 전영희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 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정대영 (2013).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 정태화 (2003).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추진 방향. 직업과인력개발**, 6(1), 54-61.
- 전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양진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경기 수원.
- 질병관리본부 (2015). **2015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충북 청주: 저자.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 통계**. 대전: 저자.
- 하태정 (2012). **빈곤이 지역사회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서울.
- 한선희 (2010). **중학생의 휴대폰중독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황혜원 (2007).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43-58.
- 황찬금 (2014). 특성화 고등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전공만족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현명선, 김경희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4(2), 252-260.
- 홍석일 (2012).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홍순혜, 이숙영 (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방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8(5), 137-169.
-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 AFL-CIO, (1996) *Full inclusion for special needs students*. Washington DC: Author
- Benda, B.B. (1997). An examination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religiosity and different forms of delinquency withi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2), 163-186.
- Embry, L.E. (2004). *The effects of variation in criteria for identifying resilient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 Cullinan, D (2007).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 An introduction for teachers and other helping professionals*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Fujiura, G.T., & Yamaki, K. (2000). Trends in demography of childhood poverty and disability. *Exceptional Children*, 66(2), 187-199.
- HIFIVE (2016)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 www.hifive.go.kr

- Kagan, J. (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An evaluative summary*. New York: W. T. Grant Foundation.
- Kauffman, J., & Landrum, T. J. (200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Keogh, B. K. (2003) *Temperament in the classroom: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s*. Baltimore, MD: Brooks.
- Kim, J. A. (2003).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the effect of religion on adolescent delinquency within an elaborated theoretical model* :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peer, school, and neighborhood influ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Ohio State University.

부 록

설문지

「 G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 」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G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G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절대 비밀을 보장하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10-0000-0000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아 영 드림
지도교수 이 승 희

<연락처>

E-mail : p000000@naver.com

직장전화번호 : 062-970-0000

I. 기초사항

기입요령	
※ 해당되는 항목의 밑줄 위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1. 성별</p> <p>_____ ① 남</p> <p>_____ ② 여</p> <p>2. 종교</p> <p>_____ ① 있다.(종교: _____)</p> <p>_____ ② 없다.</p> <p>3.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경제 수준</p> <p>_____ ① 극빈층</p> <p>_____ ② 하류층</p> <p>_____ ③ 중류층</p> <p>_____ ④ 상류층</p> <p>_____ ⑤ 최상류층</p> <p>4. 재학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유형</p> <p>_____ ① 공립</p> <p>_____ ② 사립</p> <p>5. 재학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p> <p>_____ ① 농업생명/보건의료계열(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서진여자고등학교)</p> <p>_____ ② 상업계열(광주경영고등학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p> <p>_____ ③ 공업계열(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송의고등학교, 금파화학고등학교, 동일 전자정보고등학교)</p> <p>6.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본인의 전공학과(예: 조리과학과, 디자인과, 기계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_____ ① 아주 만족한다.</p> <p>_____ ② 만족한다.</p> <p>_____ ③ 보통이다.</p> <p>_____ ④ 불만이다.</p> <p>_____ ⑤ 아주 불만족한다.</p>	<p>7. 재학중인 전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p> <p>_____ ① 인문계 진학 성적이 안되어서</p> <p>_____ ②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p> <p>_____ ③ 졸업 후에 취업할려고</p> <p>_____ ④ 적성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아서</p> <p>_____ ⑤ 부모님의 권유로</p> <p>_____ ⑥기타(_____)</p> <p>8.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합니까?</p> <p>_____ ① 1시간 미만</p> <p>_____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p> <p>_____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p> <p>_____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p> <p>_____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p> <p>_____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p> <p>_____ ⑦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p> <p>_____ ⑧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p> <p>_____ ⑨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p> <p>_____ ⑩ 9시간 이상</p> <p>9.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p> <p>_____ ① 예</p> <p>_____ ② 아니오</p> <p>10. [앞의 9번 질문에서 ①번에 응답을 한 경우만 대답하세요.] 하루에 평균 몇 개비나 피웠습니까?</p> <p>_____ ① 1개비 미만</p> <p>_____ ② 1~5개비 미만</p> <p>_____ ③ 6~10개비 미만</p> <p>_____ ④ 11~20개비 미만</p> <p>_____ ⑤ 21~30개비 미만</p>

👉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II. 정서행동특성

기입요령										
다음은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한 항목으로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여러분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면 “1”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 “0”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번호	문항	0	1	2	번호	문항	0	1	2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31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2	나는 부모님의 허락없이 술을 마신다. (구체적 내용:)				32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3	말다툼을 많이 한다.				3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4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34	나는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느낀다.				
5	즐거는 것이 매우 적다.				35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6	동물을 좋아한다.				36	나는 사고로 잘 다친다.				
7	나는 허풍을 잘 친다.				37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9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구체적 내용:)				39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10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4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11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41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12	외로움을 느낀다.				42	다른 사람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3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겠다.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4	잘 운다.				44	손톱을 깨문다.				
15	나는 꽤 정직하다.				45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6	남에게 못되게 군다.				46	몸을 움찔거리는 등 신경과민성 동작을 보인다.				
17	공상을 많이 한다.				47	악몽을 꾸다.				
18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48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19	관심을 많이 끌려고 한다.				49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0	내 물건을 부순다.				5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51	어지럽증이 있다.				
22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				52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24	잘 먹지 않는 편이다.				54	별다른 이유없이 지나치게 피곤함을 느낀다.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26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도 잘못 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56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27	샘을 잘 낸다.					a.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28	나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b.	두통			
29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 한다.(구체적 내용:)					c.	메스꺼움			
30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d.	눈의 이상(안경으로 교정된 문제는 제외)				

👉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번	문항	C	I	1	2	번	문항	C	I	1	2
56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86	고집이 세다.				
	f. 배앓이 혹은 복통					8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g. 구토					88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h. 기타(구체적 내용:)					89	나는 의심이 많다.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58	나의 피부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뜯는다.(구체적 내용:)					9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59	나는 항상 불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92	남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				
60	새로운 것을 해보길 좋아한다.					93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94	남을 잘 놀린다.				
62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95	나는 성미가 급하다				
63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96	성(sex)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64	내 또래보다는 어린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97	남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98	남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66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한다. (구체적 내용:)					99	나는 담배를 피운다.				
67	가출한다.					100	수면(잠자기)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10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69	나는 숨기는 것이 많이 있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102	기운이 별로 없다.				
70	나는 헛것을 볼 때가 있다.(환시) (구체적 내용:)					103	나는 불행하거나 슬프고 우울하다.				
71	나는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 한다.					10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72	불을 지른다.					105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73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106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대하려 한다.				
74	과시하거나 우수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107	유쾌한 농담을 즐긴다.				
75	나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108	나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76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109	힘이 닿는 한 남들을 도우려 한다.				
77	보통 아이들보다 낮이나 밤에 잠을 많이 잔다.(구체적 내용:)					110	(남자인 경우)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78	나는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					111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79	말하기(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112	나는 걱정이 많다.				
80	내 권리는 지킨다.					113	알레르기				
81	우리 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114	천식이 있다.				
82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115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 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 한다.				
83	필요없는 물건들을 많이 모아둔다. (구체적 내용:)					116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84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구체적 내용:)					117	상상력이 풍부하다.				
85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여길 생각을 한다.					118	청결 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쓴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